대한민국학술원과 함께 여는
청렴韓세상

2026년 11월 1일(일) | 제 400 호

大韓民國學術院通信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http://www.nas.go.kr** | **T. 3400-5255 F. 535-8836** | 편집 **학술진흥과**



제5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2026.10.16.)

이달의 주요기사

회원기고	서학(西學) 중국기원론	金永植 會員	2면
	맛과 미각 연구의 새로운 지평	李宗鎬 會員	8면
분과 및 학계 동향	2026 인문 사회 제3분과 학술활동	高東煥 會員	13면
학술교류	APRIM-2026 참가기	李珩睦 會員	19면
	제38차 세계사회경제학회(SASE) 연례 대회 참가기	林玄鎭 會員	27면
	2026년 필라델피아 세계수학자대회 : 수상자, 중국 수학의 약진 및 ICM 이후 AI의 놀라운 발전	金道漢 會員	37면
학술원상 수상자 기고	『김규식과 그의 시대』에 이르는 길	鄭秉峻 教授	44면
	공정이용의 역설	南馨斗 教授	50면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업적소개-	權熒基 教授	56면
학술원 소식	회의 및 행사 안내		61면

회원기고

서학(西學) 중국기원론



金永植 會員 (과학사)

다른 사람의 물건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흔히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의 차원에서도 제기되는데, 그 한 가지 예가 17, 18세기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서학중원론(西學中源論)"이다.

1.

17, 18세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관념과 지식에 접해서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그에 대해 "서학중원론"으로 대처했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당시 중국에 들어오고 있던 여러 가지 서양 과학 지식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믿었다. 고대 중국의 황금기에 중국인들이 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대에 그것이 서양 "오랑캐"의 손에 들어갔고 그 후 중국에서는 사라진 지식을 서양인들이 발전시켜 다시 중국에 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중국 기원"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 곧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고 일단 퍼져 나간 후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19세기 후반의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의 개념이나 지식의 중국 기원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로는 여러 이름이 거론된다. 방이지(方以智, 1611-1671), 황종희(黃宗羲, 1610-1695), 강희(康熙) 황제(재위 1662-1722), 매문정(梅文鼎, 1633-1721) 등이 가장 흔히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외에 웅명우(熊明遇, 1579-1649)나 왕석천(王錫闡, 1628-1682)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중국의 기원이 거론된 서양의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地球)" 개념이다. 많은 17세기 중국 학자들이 고대 중국의 문헌, 특히 『주비산경(周髀算經)』에서 지구 개념의 기원을 찾았다. 다른 서양의 우주론적 개념에 대해서도 고대 중국의 기원이 자주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지전(地轉)" 개념의 기원으로는 고대 중국의 "사유설(四遊說)"이, 그리고 "천구(天球)" 개념의 기원으로는 『초사(楚辭)』의 "구중(九重)"이라는 표현이 거론되었다. 이 같은 우주론적 개념 이외에, 서양 천문학 자체가 고대 중국의 역법(曆法)에서 기원했고 후에 유럽을 포함한 여러 변방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되기도 했다. 서양 천문학의 중국 기원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강희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 후 『어제수리정온(御製數理精蘊)』(1721년 간행)이나 『명사(明史)』 "역지(曆志)" (1739년) 같은 정부 간행 천문역법 서적에 실리게 되어 19세기 초에 이르도록 정부와 학자들이 받아들인 정설(定說)이었다.

수학적 개념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대 중국의 기원이 찾아졌다. 황종희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서양의 기하학과 측량법이 고대 중국 『주비산경』의 구고(句股)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양 수학의 다른 개념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기원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방중통(方中通, 1633-1698)은 구고법의 기원을 하도(河圖)로까지 거슬러 올렸는

데, 낙서(洛書)에서 “가감승제(加減乘除)”의 산술적 연산법의 기원을 찾았다. 매곡성(梅穀成, 1681-1763)과 강희제 등은 서양의 대수학이 고대 중국의 “천원술(天元術)”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천문학이나 수학적 지식 이외에도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대 중국의 기원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호위(胡渭, 1633-1714)는 서양 점성술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으며, 완원(阮元, 1764-1849)은 고대의 물시계(漏刻)가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던 서양 자명종(自鳴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했고, 19세기의 모상린(毛祥麟)은 서양의 외과 수술 기법이 중국 고대의 전설적 명의(名醫)인 화타(華陀)의 의술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2.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기원론을 주장하면서 제시된 논거들은 억지스러워 보이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기원론이 주장되던 당시에도 그 같은 문제가 있음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기원에 대한 생각이 출현하고 받아들여진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그렇게 이상하거나 억지스럽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문화로부터 새로운 관념이나 물건을 받아들일 때, 특히 그것들을 자신들의 문화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로부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지어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이질적인 외래의 관념이 사실은 자신의 문화에서 기원했다고 인식하는 일은 그 외래의 관념을 동화(同化)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과 다른 외래의 관념에 접했을 때, 특히 그 같은 외래의 관념이 자신의 전통에서 볼 때 야만스럽거나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단순히 번역만 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전통에 연결시키고 동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인데, 자신의 문화의 고대 황금기에서 그 같은 외래 관념의 기원을 찾게 된다면 이는 아주 효과적인 “동화”의 방식이 될 것이겠기 때문이다.

외래의 문화적 요소들--개념 이론, 물건--을 받아들임에 앞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외래의 개념과 이론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이는 쪽 문화의 개념과 이론들을 통해 그것들을 보아야만 한다. 일종의 “번역(translation)”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번역”--언어를 통해서든 사고를 통해서든--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외래의 문화적 요소들과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들 사이에 유사성을 보게 된다. 17세기 중국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당시 중국에 들어오고 있는 서양의 개념들과 중국의 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서양과 중국의 관념들 사이의 위와 같은 유사성에 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기원을 지닌다고, 즉 어느 한 곳에서 기원해서 다른 곳으로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같은 유사성에 접해서 중국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설명 한 가지는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같은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이 서로 다른 곳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회 신부들의 책들과 중국의 고대 문헌들의 내용에서 보는 유사성들에 대해 이처럼 설명하면서 중국인들이 사용한 표현은 “심동리동(心同理同: 사람들의 마음이 한가지이고 따라서 리(理) 또한 한가지이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개념들이

나 물건들이 하나의 동일한 기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비록 논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위의 "심동리동"이라는 생각과 "동일 기원"이라는 생각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심동리동"이라는 관념이 중국기원론이 널리 받아들여진 후에도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기원론자였던 매문정이 서양과 중국의 수학이 하나임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기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 대안들이 가능했다. 1) 서양 기원, 2) 중국 기원, 3) 그 외 다른 지역의 기원.

이 세 가지 대안들 중 굳이 공동의 단일한 기원을 찾아야만 한다면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것이 당연했다. 중국 기원에 대한 믿음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중화(中華)" 문명의 탁월성과 보편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확신이다. 사실 자기 전통, 특히 유가 전통의 우수성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물론 정통 유학 이론과 믿음들에 대해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같은 반항자들까지를 포함해서 누구도 중국 문화의 근본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지니지는 않았다. 학문, 사회제도, 도덕적 가치, 심지어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명의 모든 영역이 오랑캐들이 거주하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그것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여겨졌다. 매문정 같은 사람마저도 모든 언어들 중에서 중국어만이 제대로 된 어순(語順)을 가진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매문정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한 후 중국에 온 서양인들도 중국 문명만큼 우수한 문명을 보지 못했다고 실제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문명의 보편성과 탁월성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치있는 모든 것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생각으로 쉽게 이어졌다. 서양 천문학과 중국 천문역법의 종합을 시도한 『역학회통(曆學會通)』(1662)의 서문에서 설봉조(薛鳳祚, 1600-1680)는 문화, 예(禮), 음악이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뒤질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했다. 중국인들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 같은 믿음은 외국인들의 기록에서도 자주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 가톨릭 신부는 어느 중국인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들의 종교는 우리 문헌에 실려 있지 않는 이방의 종교입니다. 과연 중국의 바깥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대 성인들의 시기 중국의 문명이 최고에 달해 있었다는 믿음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중국기원론의 형성과 수용에 기여했다. 고대 중국 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중국 문화의 우월함에 대한 중국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중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서양의 과학 지식이 사실은 문화의 황금기였던 고대 중국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 주었다.

한편, 고대 황금기의 완벽한 지식에 대한 믿음 안에는 그것이 그 이후에 쇠퇴했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대의 완벽한 지식이 후대에 쇠퇴했다는 이 같은 믿음은 중국기원론 신봉자들에게 당초 중국에서 기원했던 서양의 천문학 지식이 자신들의 시기에 이르러서 중국 역법의 수준보다 더 우월하다는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 서양인들이 중국 고대의 완벽한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데 반해 중국인들은 오히려 그 같은 고대의 지식을 잃었고 따라서 천문역법이 쇠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믿음에 바탕해서 고대 문헌들의 몇몇 구절

들이 고대 중국의 지식이 주변의 오랑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으로, 실제로 전래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화중(和仲)에게 따로 명해 서쪽에 살도록 했다(分命和仲宅西)"라는 구절은 요 임금이 화중(和仲)을 서방 지역으로 파견했고 그가 그곳에 중국 역법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좌전(左傳)』의 "천자가 다스림을 잃자 학문은 네 오랑캐들에게 있게 되었다(天子失官, 學在四夷)"는 구절은 중국의 제도가 쇠퇴한 후 제대로 된 지식이 그것을 전해 받은 오랑캐들 사이에서 발견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서학중원론은 중국인들에 의해 주로 서양 과학 지식의 수용을 옹호하는 논리로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1630년경 서학중원론은 숭정(崇情) 개력을 추진하던 사람들의 공식 입장이 되다시피 해 있었다. 그리고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중국 학자들은 서학중원론과 함께 공자(孔子)가 오랑캐 담자(郯子)에게서 배웠다는 『좌전』의 유명한 구절(仲尼聞之, 見於郯子而學之)이나 "예(禮)가 사라지면 그것을 오랑캐들에게서 구한다(禮失求諸野)" 라는 공자의 이야기 등을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서학중원론이 서양 과학 지식의 수용을 정당화해 주는 논리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여러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는 서학중원론을 청 왕조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했다. 중국이 잃어버린 고대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여 발전시켜 온 서양인들로부터 역법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 황실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만주족 왕조인 청의 황제로서 그가 자신이 중국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보이는 일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재위기간 동안의 그가 추진한 여러 학술, 편찬 작업 전체가 고대 중국의 성인들을 본받는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황종희, 방이지 같은 명의 유신(遺臣)들은 원래 중국의 성인들로부터 유래한 것을 서양의 오랑캐들로부터 받아들인--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청 왕조를 깎아내리는 데에 서학중원론을 사용했다.

중국의 전통 역법을 고수하고 서양 천문학의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국기원론에 바탕해서 서양 천문학을 깎아내렸다. 예를 들어 왕석천은 서양 천문학의 여러 요소들이 "중국의 구법에 갖추어져 있고 ... 서양인들이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을 절취(竊取)했는데, 어찌 그들이 [중국 역법]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왕부지는 서양인들로부터 취할 만한 것은 원근측법 한가지일 뿐 그 외에는 모두 중국에서 표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 천문학을 반대한 사람들은 서양 천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학중원론에 기여한 면도 있었다. 서양 천문학에 대한 중국의 기원을 찾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외래의 것들의 기원을 자신들의 과거 전통에서 찾는 경향은 17세기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역사상 많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경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었다.

또한 이렇듯 외래의 것들에 대해 중국의 기원을 찾는 경향이 17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니었으며, 비슷한 태도를 중국 역사상 외래문화의 요소들이 들어왔던 다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

국인들은 불교, 마니교(Manicheism), 유대교, 네스토리우스교(Nestorian Christianity), 이슬람교 등 중국에 들어온 거의 모든 외래의 종교의 기원을 중국의 전통에서 찾았다. 특히 불교가 노자(老子)에서 기원했다는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미 AD 166년에 한(漢)의 환제(桓帝)에게 제출된 상소(上疏)에는 "노자가 오랑캐들에게 들어가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주희(朱熹, 1130-1200)마저도 불교의 관념 중 많은 것들이 "노자와 장자(莊子)를 표절했거나 열자(列子)에서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장자의 여러 견해가 공자의 제자들로부터 얻은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 중 좋은 것들은 모두 장자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기독교가 불교에서 기원했다는 믿음도 있었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지식과 물건들에 대한 기원을 고대 중국에서만 찾았던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더 가까운 시기의 관념들이 서양 지식의 기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방공소는 서양의 지구와 천구 관념의 기원을 『황제내경(黃帝內經)』, 『주비산경』, 『초사』 같은 고대의 문헌만이 아니라 소옹(邵雍, 1011-1077), 심괄(沈括, 1031-1095), 주희 같은 송대 학자들의 저술에서 찾았다. 많은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학자들--황백가, 강영(江永, 1681-1762), 김만중(金萬重, 1637-1692), 김석문(金錫文, 1658-1735), 홍대용 등--은 장재(張載, 1020-1077)의 『정몽(正蒙)』과 주희에서 "지전(地轉)" 개념을 읽어냈다.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서양 역가들이 장자(張子)의 좌선설(左旋說)을 표절해서 이론을 세웠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중국 고대에서 기원을 찾아내는 일이 외래의 관념이나 지식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었다. 사실 원래 중국의 학자들은 고대의 문헌을 찾아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지구설을 둘러싼 논쟁에서 "평평한 땅"을 주장했던 쪽이나 "지구"를 주장했던 쪽이 모두 고대의 문헌들에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찾아냈다. 천구 개념에 대한 논쟁은 혼천론(渾天論), 개천론(蓋天論) 및 구중천(九重天)에 관한 논의와 연결됨으로써 중국 우주론 전통 내부의 논의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했다.

고대 중국인들도 때로는 자신의 견해의 기원을 자신들보다 더 앞선, 따라서 더 신성한, 고대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BC 1세기로 보이는 『황제내경』의 저자들, 또는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책에 먼 고대의 전설적 "황제(黃帝)"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려 했으며, '황제'의 이름은 『주비산경』 같은 그 외의 책들에도 등장했다. 『산해경(山海經)』은 우(禹) 임금과 연결 지어졌다. 자신들의 책을 더 먼 고대의 성인의 이름과 연결 지음으로써 이들 고대의 저자들이나 편찬자들이 꾀했던 것은 그 책들에 "고대의 권위"를 부여하여 수학이나 의학과 같이 주변부에 속한 그 책들의 주제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청대 중국기원론을 주장한 많은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학문세계에서 주변부에 속했던 천문학과 수학과 같은 분야들을 중국 고대의 경전들과 연결지음으로써 그 분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했던 것이다. 다만 이들 청대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분야들이 지닌 주변부적 성격이 이중적이었다는 점에서 고대의 저자들과 달랐다. 그것들은 전통적 유가 학문에서의 지위가 부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온 지식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 전통 속에서 이들 분야의 지식의 기원을 찾는다는 것은 이 같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그 분야들의 지위를 높여서 학자들 사이에 받아들일 만한 분야가 되게 하는 데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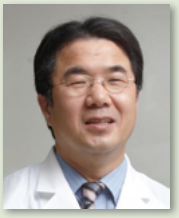
중국 학자들이 고대 중국에서 찾아냈던 "기원"은 서양의 지식 자체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오랑캐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여기는 태도의 기원까지도 고대에서 찾아내었다. 웅명우, 방이지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서양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을 공자가 오랑캐 담자에게서 배웠다는 위에 언급한『좌전』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교했다. 서광계(徐光啓, 1562-1633) 등은 과거 중국이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였던 것을 서양의 천문학을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개력(改曆) 작업의 전례(前例)로 제시했다. 서양인들처럼 물리(物理)를 중시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풍토가 상고(上古) 성인들의 전통이라고 본 방이지나,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오늘날 서양처럼 학자들이 천문역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조선의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태도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의 관념에 대해 자신들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도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기 유럽의 기술자, 장인(匠人)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지식과 실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기의 문헌들에서 찾았다. 중세 아랍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랍의 과거 문헌에서 그것들에 해당하는 아랍어 이름들을 찾아냈다. 아랍인들로부터 받아들인 고대 그리스 과학과 학문을 외래문화로부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대 황금기의 유산으로 생각한 중세 유럽인들도 본질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태도는 기독교 이전 고대 그리스의 문헌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찾았던 르네상스 시기의 기독교도 인문주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사실 고대에 황금기가 있었다는 생각은 서양 과학이 도입되던 시기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 모든 시기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중국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 유럽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흔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회원기고

맛과 미각 연구의 새로운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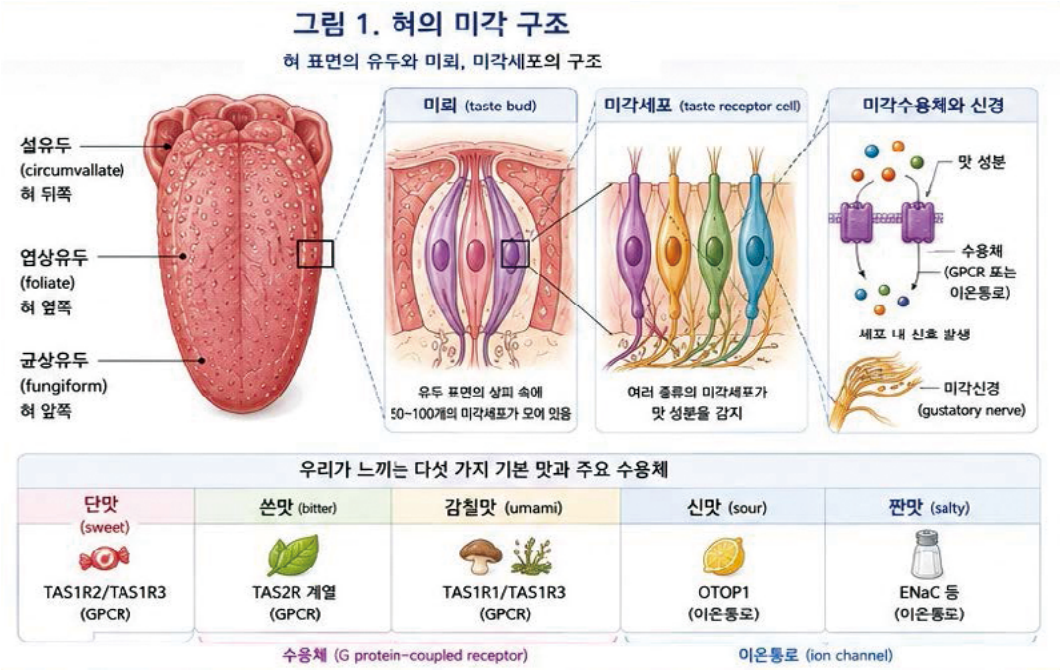


李宗鎬 會員 (구강악안면외과학)

맛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맛있다”, “짜다”, “달다”, “쓰다”라고 말한다. 너무 익숙한 감각이라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이나 수술, 약물치료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맛을 잃는 일은 단지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식욕과 식사량이 줄고, 체중과 영양상태까지 나빠질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줄어든다. 이처럼 맛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혀에는 작은 ‘화학 탐지기’가 있다.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으로 나뉜다. 과거 교과서에는 혀끝은 단맛, 가장자리는 신맛, 뒤쪽은 쓴맛을 주로 느낀다는 ‘혀 지도’가 널리 소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각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혀 표면의 여러 유두 주변에는 미뢰(taste bud)라는 작은 감각기관이 있고, 각 미뢰에는 다양한 미각세포가 모여 있다. 음식물이 침에 녹아 미뢰에 닿으면 미각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이를 감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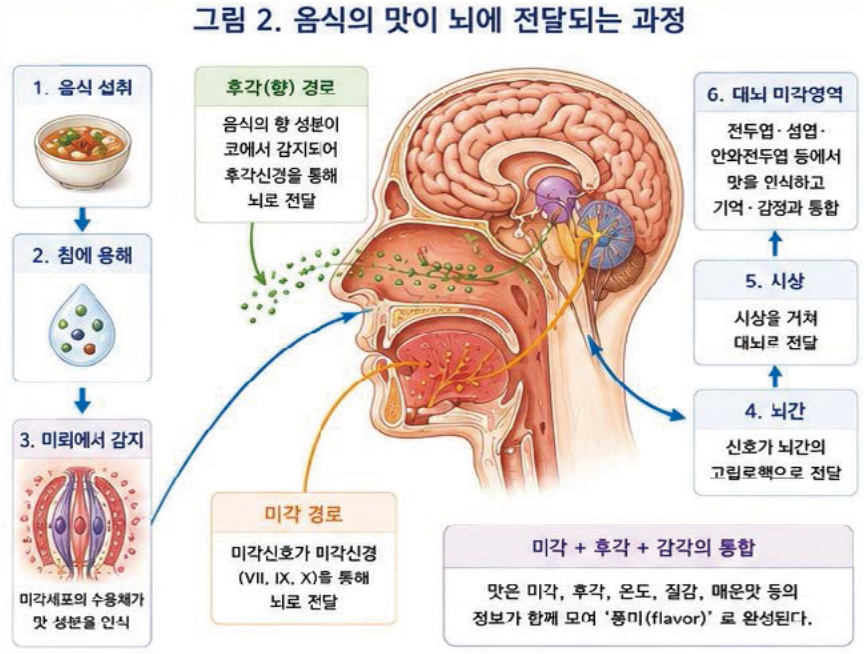
[그림 1] 혀의 미각 구조(미각기관의 미세구조와 맛 자극의 분자적 수용 기전). 단맛과 감칠맛은 각각 TAS1R2–TAS1R3 및 TAS1R1–TAS1R3 이종이합체 수용체가, 쓴맛은 TAS2R 계열 수용체가 주로 매개한다. 이들은 G단백질 연결 수용체로서 제 II 형 미각세포에서 PLCβ2–IP$_3$R3–TRPM5 신호전달 축을 활성화한다. 세포 내 칼슘 증가와 탈분극에 이어 CALHM1/3 통로를 통한 ATP 방출이 유도되며, ATP는 구심성 신경의 퓨린성 수용체를 활성화한다. 신맛은 주로 제III형 미각세포의 양성자 통로 OTOP1에 의해 감지된다.

다. 혀에 수많은 작은 '화학 탐지기'가 설치된 셈이다(그림 1).

단맛을 예로 들면, 설탕을 먹으면 단맛 성분이 미각세포의 단맛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정보가 미각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된다(그림 2). 그제야 우리는 "달다"고 느낀다. 수용체가 자물쇠라면 설탕이나 감미료는 여기에 맞는 열쇠인 셈이다. 최근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사람의 단맛 수용체 구조를 원자에 가까운 수준까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수용체의 정확한 구조를 알면 어떤 물질이 어느 부위에 결합해 단맛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식은 적은 설탕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내거나 새로운 대체 감미물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각 연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비만, 당뇨병, 대사질환, 치아우식증과도 맞닿아 있다.

쓴맛은 왜 존재할까? 쓴맛을 떠올릴 때마다 인간의 감각이 오랜 진화의 산물임을 생각하게 된다. 자연계의 독성물질 상당수는 쓴맛을 낸다. 쓴맛을 민감하게 감지해 삼키지 않는 능력은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처음 쓴 채소를 먹고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도 이런 오래된 생물학적 기억의 흔적일지 모른다. 사람마다 쓴맛 민감도가 크게 다른 점도 흥미롭다. 같은 채소를 두고 한 사람은 "너무 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유전적 차이가 그 원인 중 하나다. 최근에는 쓴맛 수용체가 혀뿐 아니라 위장관, 기도, 여러 조직과 세포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이나 기관지도 '맛'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가 의식하는 맛과는 다르지만, 이 수용체들은 체내 화학물질을 감지해 소화, 호르몬 분비, 방어반응에 관여하는 생체센서로 여겨진다. 이 발

그림 2. 음식의 맛이 뇌에 전달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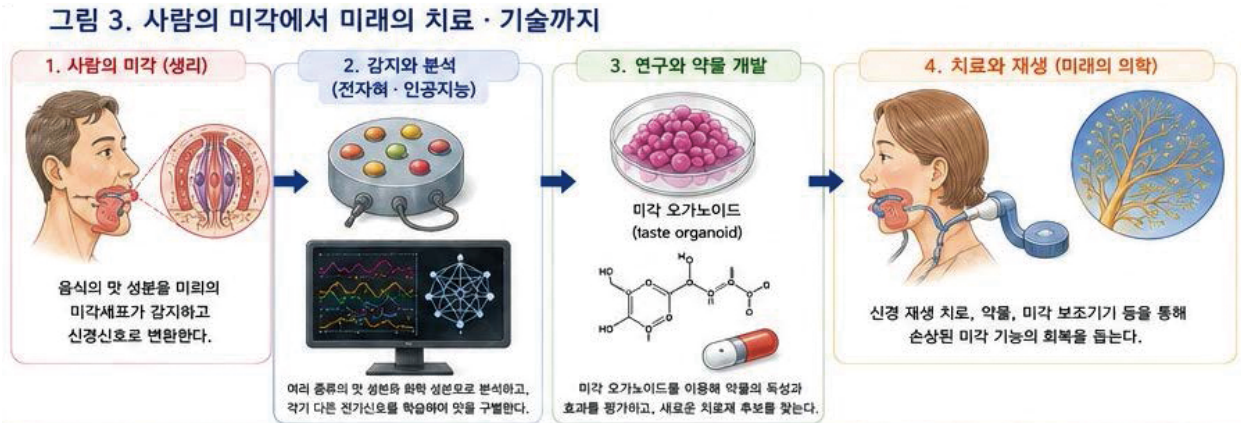
[그림 2] 맛이 뇌에 도달하는 경로 – 음식 → 미뢰 → 미각신경 → 뇌. 미각세포의 반응은 구심성 신경활동으로 변환되어 중추로 전달된다. 이들 구심성 섬유는 연수의 고립로핵 미각 영역에 투사하며, 영장류의 상행 미각 경로는 시상 배쪽뒤안쪽핵의 소세포부를 거쳐 주로 전방 섬엽과 전두덮개에 위치한 일차 미각피질로 이어진다. 이후 안와전두피질, 편도체 및 기타 관련 회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맛의 정체성·강도뿐 아니라 쾌불쾌, 보상가치, 섭식 동기 등이 처리된다.

견은 미각 연구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과거에는 혀와 뇌를 잇는 감각신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사질환, 면역, 소화기학, 호흡기학, 약리학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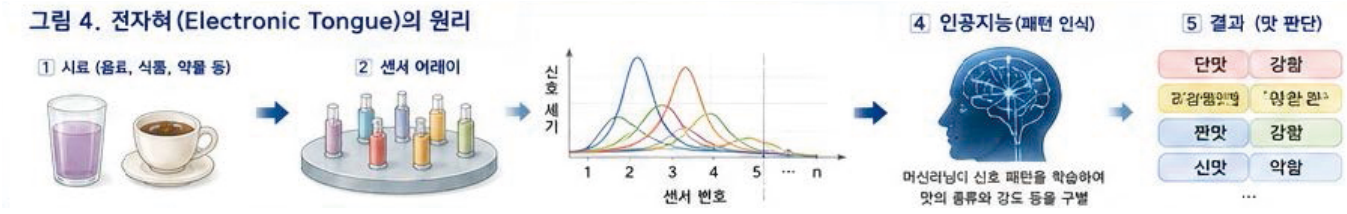
우리가 '맛'이라 부르는 감각의 상당 부분은 사실 향에서 온다. 코를 막고 사과 한 조각을 먹어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맛과 약한 신맛은 느껴지지만 사과 특유의 풍미는 크게 줄어든다. 코를 놓는 순간에야 "아, 사과구나"라는 느낌이 선명해진다. 일상에서 말하는 '맛'은 혀의 미각, 코의 후각, 음식의 온도와 질감, 매운맛 같은 삼차신경 감각이 합쳐진 결과다. 그래서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겠다"는 환자도 검사해 보면 미각은 비교적 정상이고 후각만 크게 저하된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의 미각검사는 단맛과 짠맛을 구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각, 침 분비, 구강감각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각도 시력이나 청력처럼 측정할 수 있을까?

눈이 침침하면 시력검사를 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청력검사를 받는다. 그렇다면 음식 맛이 예전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미각검사는 시력검사나 청력검사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다. 현재의 간단한 검사법으로는 일정 농도의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물질을 묻힌 작은 종이를 혀에 대고 맛을 구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혀에 매우 약한 전류를 흘려 맛을 느



[그림 3] 전자혀와 미각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미각치료. 본 그림은 생체 미각의 자극 수용 원리를 출발점으로, 전자혀 기반 분석, 미각 오가노이드 연구 및 미각 기능 회복을 위한 개념도이다.



[그림 4] 사람의 혀에서 전자혀로 – 미각수용체·센서·인공지능의 연결.
전자혀(electronic tongue)는 교차선택성을 갖는 복수의 센서와 다변량 분석 체계를 결합하여 액체 시료의 특성을 평가하는 분석 플랫폼이다.
일반적인 전자혀에서는 각 센서가 단일 기본 맛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여러 성분에 중첩된 감응을 보인다.

끼기 시작하는 세기를 측정하는 전기미각검사도 있다. 특히 혀 주변 수술이나 신경손상 뒤 좌우 미각기능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한 가지 검사만으로 미각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미각·후각·침 분비·구강감각 검사를 종합하고 뇌영상과 인공지능 분석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미래의 건강검진에서는 시력과 청력처럼 간단한 미각검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그림 3,4).

미각 연구가 의학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암 환자의 미각장애다. 구강암 환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과정에서 음식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모든 음식에서 금속맛을 느끼고,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기도 한다. 원인은 미각세포나 미각신경의 손상일 수 있으며, 침이 줄어 맛 성분이 충분히 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미각장애는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식사량이 감소해 체중과 영양상태가 나빠지면 암 치료를 견딜 힘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각장애를 확실히 회복시키는 약물은 아직 많지 않다. 아연 같은 영양소가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원인 약제를 조절하거나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미각장애'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환자를 묶기보다 미뢰 손상, 신경 손상, 침 부족, 뇌의 맛 해석 변화 등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인이 다르면 치료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비만 치료제가 음식 맛까지 바꿀까? 최근 주목받는 비만·당뇨병 치료제와 미각의 관계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한 사람 중에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맛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 미각검사로 확인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GLP-1 계열 약물 사용자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대조군과 달랐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만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약물이 미각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더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비만 치료는 주로 '얼마나 배고픈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가'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식욕과 맛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

기계도 맛을 구별할 수 있을까?

미각 연구에는 공학처럼 들리는 분야도 있다. 바로 '전자혀(electronic tongue)'다. 전자혀에는 여러 화학센서가 들어 있어 액체가 닿으면 센서마다 서로 다른 전기신호가 나타난다(그림 4). 컴퓨터는 이 신호 패턴을 분석해 음료의 종류나 쓴맛의 정도를 구별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활용된다. 사람의 뇌가 여러 미각세포의 정보를 종합하듯, 인공지능이 수많은 센서 신호를 학습해 맛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활용 범위도 넓다. 식품회사는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약회사는 새 약의 쓴맛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용 약은 지나치게 쓰면 복용을 거부할 수 있어 쓴맛 평가가 중요하다. 사람이 직접 맛보지 않고도 전자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의약품 개발에 유용하다. 최근에는 인간의 미각수용체를 전자장치에 연결해, 단순한 농도 측정을 넘어 사람의 혀와 유사한 방식으로 맛을 판단하게 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더 흥미로운 분야는 한 곳에서 분석한 맛 정보를 전송해 다른 곳에서 유사한 미각자극을 재현하는 '디지털 미각' 연구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언젠가는 영상과 소리처럼 '맛의 정보'도 전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상현실 속 음식을 보며 맛까지 느끼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음식을 간접 체험하는 장면도 상상할 수 있다. 의학적 활용 가능성은 더욱 큰데, 신경손상이나 암 치료 뒤 미각을 잃은 환자에게 반복적인 자극을 제공해 감각재활에 활용하는 것이다. 보청기가 소

리를 증폭하고 인공와우가 청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듯, 미각도 머지않아 전기적·화학적 자극으로 보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재생의학에서도 주목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각세포는 평생 같은 세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 세포로 교체된다. 즉 혀에는 미각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실험실에서 3차원으로 배양해 미각기관과 유사한 작은 구조물인 '미각 오가노이드(taste organoid)'를 만든다(그림 3). 크기는 작지만 실제 인간 조직의 여러 특성을 재현할 수 있어, 항암제가 미각세포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살피거나 회복을 촉진하는 물질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언젠가는 환자 자신의 세포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약물이나 방사선치료가 그 환자의 미각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 현실화된다면 '개인 맞춤형 미각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릴 것이다.

맛을 잃은 이에게 다시 맛을 되찾아 주는 날

미각은 오랫동안 다른 감각보다 의학적 관심을 덜 받아왔다. 시력이나 청력 상실의 어려움은 잘 알려져 있지만, 미각 상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에게 먹는 일은 단순한 열량 섭취가 아니다. 음식은 기억이자 문화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다. 어린 시절의 음식 맛을 수십 년 뒤에도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 맛과 기억의 깊은 연결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미각 연구가 내게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과학자는 현미경으로 작은 미각수용체를 관찰하고, 다른 과학자는 전자센서를 만들며, 또 다른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미각 오가노이드를 키운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연구지만,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같을지 모른다. 질병이나 치료로 맛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맛을 돌려주는 것이다.

커피 한 모금을 '맛있다'고 느끼려면 혀의 작은 미뢰에서 시작된 신호가 여러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 들어온 향, 입안의 온도와 촉감, 과거의 기억까지 함께 작용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 숟가락의 음식과 한 잔의 차에는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과정이 숨어 있다. 언젠가는 병이나 수술로 맛을 잃은 환자에게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시력이나 청력처럼 미각을 정확히 측정하고, 손상 부위를 찾아 약물·재생치료·미각 보조기기로 다시 맛을 느끼게 하는 시대 말이다. 그날이 온다면 미각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수용체 하나를 발견한 논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잊었던 음식의 맛을 되찾은 누군가가 식탁에서 "아, 이 맛이었지."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미각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지점일 것이다.

분과 및 학계 동향

2026 인문 사회 제3분과 학술활동



高東煥 會員 (한국사)

인문 사회 제3분과는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과학문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과의 학문 동향을 정리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인문사회 3분과의 학문동향과 학술활동을 정리하는 이 글에서는 불가피하게 회원 각자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회원중에는 건강등의 사정으로 학술활동이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고령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는 회원도 있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기동 회원은 2026년 상반기에 논문 「新羅·高麗 交替期에 있어서 西北韓 지역의 特性」(『학술원논문집』 제65집 1호, 269~306쪽)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술원의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수행한 성과로 제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신라가 3국을 平定한 뒤 새로이 확보한 대동강 이남 임진강 유역 북방에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平州(현 평산)를 비롯한 14개의 郡縣을 설치하고, 이 군현을 浿江鎭典의 관할아래 軍政체제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조정은 이곳에 옮겨진 民戶들에게 屯田을 개발하고, 일선을 지키는 군사적 임무를 부과하였다. 9세기를 통해서 신라는 내란이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골품제와 律令制가 해체되어 갔으나, 신라 전역을 통틀어 가장 후진 지대였던 이 平州 14개 군현 지역만은 견실하게 운영되어 사회적 활력마저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889년(진성여왕 3) 농민들의 전국적 반란으로 지방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에 따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패강진 지역은 고립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생활 초기에 발표한 논문 「신라 下代의 패강진」(『한국학보』 4, 1976)에서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때 연구자는 '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라는 副題를 논문에 달았으나, 정작 이 문제를 詳論하지 못한 채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이번 논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농민반란이 일어난 지 10여 년 뒤인 서기 900년경, 두 개의 반란국가가 등장하여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시대를 연출했다. 당시 궁예는 溟州(현 강릉)와 화천, 金城(현 금화), 철원, 개성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개성 북쪽에 인접한 패강진 관할지역으로 나아가 평주 14군현의 잔여 세력을 일거에 집단적으로 흡수하였다. 궁예는 뒤에 철원에 도읍하면서 패강진지역에 13개의 鎭을 分置했노라고 선전했는데, 이는 바로 14개의 군현으로 결합된 이 지역을 접수했다는 의미이다. 평주 14군현 출신들은 궁예의 후고구려 정권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 이르러 이들 세력은 권력의 중추로 급부상했다. 태조의 가계는 조부 作帝建이 평주 세력가의 딸과 혼인하고 외증조부 康忠이 패강진 장관 金八元과 교류하는 등 일찍부터 패강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건국 후 태조의 북진정책과 서경(평양) 중시책에 따라 동주(서흥)의 金行波 등 패강진 세력이 대거 평양으로 이주하여 기반을 닦았다.

그 뒤 983년(성종 2) 12牧 제정 때 평주 14군현 지역의 해주와 황주가 선정되었고, 995년(성종 14) 12목을 다시 10道로 개정할 때 패강진 지역에 浿西道가 설치되었다. 패서도는 14개 州, 4개 郡, 7개 鎭으로 구성되었다. 군의 상급 관청인 주가 군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은 고려 조정이 옛 패강진 지역을 파격적으로 우대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군사적 의미를 지니는 鎭을 패서도에만 설치하였다. 고려의 지방군은 州縣軍과 州鎭軍을 두었는데, 고려 전기의 주진군의 선구적 형태를 신라 하대의 패강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라 하대 패강진의 군사·행정 조직이 고려 전기의 주진군 제도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평주 14군현은 신라와 고려를 잇는 역사적 연속성의 현장이었으며, 박수경 등 패강진 무장 가문의 활약과 그 유산은 고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태진 회원은 지난 1년 동안 3편의 단독저서 출판, 1편의 단독저서 일역본 간행, 2편의 영문논문(북챕터) 출판, 1편의 국문 논문 출판 등의 활발한 학술활동 성과를 거두었다. 단독저서 3편은『이태진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특강-국민국가 130년의 역사-』(지식산업사, 2025.12),『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상) -여섯 가지 이슈로 다시 읽는 근대사-』(사회평론 아카데미, 2026.8),『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하) -공과 과로 읽는 현대사-』(사회평론 아카데미, 2026.8)이며, 日譯本 1편은 大阪大學 酒井裕美 교수가 번역한『日本帝國の「東洋史」開發と天皇制ファシズム』(明石書店, 東京, 2026.3)이다. 2편의 영문논문은 ***"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Young-Ho Kim · Tae-Jin YI · Wada Haruki · Dekun Hu · Alexis Dedden Editors, Springer. 2026)에 실린 1) "A Case for the Modifiabilit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mining the Varying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Over South Korea Participation", 2)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Trans-war Phenomenon' in Postwar of Japan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이며, 1편의 국문논문은 대한민국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그 결과를 출판한「의친왕 이강의 항일 활동-송암(松庵) 김재식(金在植) 및 '제국익문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제64집 2호, 2025.12)이다. 이하 주요 저작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태진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특강』은 2023년 6월 7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중앙일보사의 일요판『중앙 SUNDDAY』에 연재한 동명의 연재물을 정리 보완해 낸 책이다. 저자가 2000년에 펴낸『고종시대의 재조명』에서부터 추구해온 일본제국 식민주의의 왜곡으로 빚어진 근대사의 여러 잘못된 이해, 인식을 바로 잡는 연구 성과를 일반 독서인의 레벨에 맞추어 쓴 글이다. 책 머리에 붙인「'130년 국민국가 역사'를 제창하며」는 1895년 2월 26일(양력) 군주 고종이 내린「교육조칙」이 "나라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신민(臣民) 창출을 위한 덕(德), 체(體), 지(智)의 삼양(三養)의 신교육을 제창한 점을 주목하여 강조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상권은 일제 식민주의 역사로 잘못 알려진 근대사의 주요 대목 여섯 가지를 체계적으로 비판하여 자력 근대화 노력의 진정한 우리의 근대사를 제시했으며, 하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진정한' 우리의 근대사를 이어가는 현대사를 공과 과의 양면을 아울러 살펴 좌, 우 이데올로기 싸움의 터전처럼 잘못 수립되고 있는 그간의 현대사 서술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마무리 글「대한민국 대통령, 왜 끝이 불행한가?」는 모두 함께 반성하는 기회를 기대했다. 이 책의 간행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 동아일보(2026.09.07)에서는 <근대가 날아가 버린 현대사를 새로 쓰다>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2026.09.08)에서는 <'실패한 근대'와 '해방 전후' 넘어…통합의 근현대사>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2026.09.12)에서는 <실패한 역사 아니라 오늘을 이끈 근대>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의친왕 이강의 항일활동」 논문은 조선·대한제국의 황실 인물로 유일하게 1899년부터 1905년까지 근 6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한 의친왕 이강(1877~1955)의 항일활동을 새롭게 규명한 것이다. 의친왕의 유학은 황제 고종이 왕립대학 창설을 위해 보낸 것이었으나,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로 왕립대학 창설은 실현되지 못했다. 고종은 1902년에 황제 직속의 對日 정보기관으로 帝國益聞社를 세웠으며, 1906년 4월 귀국한 의친왕에게 의친왕부를 세워 제국익문사의 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친왕은 황실 재산 관리 기관인 내장원 관원 경력의 소지자 김재식(金在植)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또한 항일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최병현 회원은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논문 「가야시기 김해지역의 고분 전개와 신라 지역화」(『학술원논문집』 제64집 2호, 대한민국학술원, 2025.11. pp.155~279)는 필자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 김해지역에서 原가야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체가 성립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을 밝히고자 써 온 연작 논문(「원삼국시기 김해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中央考古研究』 39, 중앙문화재연구원, 2022), 「가야조기 김해지역의 목곽묘 전개와 구야 내부 사회의 변화」, 『학술원논문집』 제62집 2호, 대한민국학술원, 2023.12)의 마지막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기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기까지 고분을 중심으로 김해지역에서 전개된 고고학 자료를 살피고 신라가 김해지역에 침투하여 가야를 통합해 가는 과정을 추론하였다. 김해지역에서는 왕묘인 초대형 목곽묘가 가야조기에 이어 대성동고분군에서 축조되고 있었지만, 서기 4세기 중엽에는 가야양식토기가 성립하여 가야시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과 함께 김해지역의 양대 세력 중 하나인 양동리고분군 축조세력은 곧 신라계 고분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서기 4세기 후엽부터는 김해 전역의 고분군에서 가야양식토기와 함께 신라전기양식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여, 서기 400년경부터는 고분의 부장토기가 신라전기양식토기 중심으로 바뀌고 가야양식토기는 소수화 하였다. 이는 신라가 김해지역의 가야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그 지배하에 넣고 김해지역을 신라지역화한 과정을 말해주는데, 이와 같은 신라의 김해지역 장악이 집안의 고구려 광개토왕비에서는 서기 400년 고구려군이 신라를 도와 남정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신라 지역화 이전 가야시기 김해지역에서는 고분군의 분포가 가야조기에 비해 월등히 확대되고, 고분군 사이에 중층적인 위계구조가 형성되어, 김해지역의 정치체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가야가 한국고대사에서 정의하는 고대국가, 즉 정치적 중앙이 형성되어 광역의 지방을 지배해 나가는 사회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라 지역화 이후 김해지역 사회는 신라에 의해 재편되어 지배를 받아오다가 서기 6세기 전반기에 신라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둘째 논문 「고대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 –신라와 가야 사이에서-」(『학술원논문집』 제65집 1호, 대한민국학술원, 2026.7. pp.307~401)는 고대에 가야에 속했는지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을 고고학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고대의 창녕과 부산지역, 특히 부산지역의 정치적 동향은 김해에서 성장한 가야가 고대국가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는지의 여부와도 직결된 문제로, 창녕지역에 대해 살펴본 전고(「한국고대사에서 창녕은 원래 가야였나?」, 『학술원논문집』 제62집 1호, 대한민국학술원, 2023.7. pp. 181~309)에 이어 부산지역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에

서는 서기전 1세기부터 변한에 뿌리를 둔 정치체가 성장하여 서기 4세기 중엽까지는 신라에도 가야에도 속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 오면서, 그 수장세력이 신라와 결속하거나 또는 신라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4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급변하여 부산지역은 신라의 간접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그 지역 수장묘들이 부산 복천동고분군에 이어 연산동고분군에서 대형 고분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서기 6세기에 들어올 무렵부터 신라는 부산지역을 직접지배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산지역이 김해지역과 함께 금관가야의 일원이었다거나, 서기 400년 고구려의 남정 이후 금관가야의 패권이 김해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말해준다.

셋째 논문 「금호강·형산강유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 편년과 초현기 목관묘의 전개」(『崇實史學』 56, 역사문물연구소, 2026.6. pp.157~209)는 신라의 모태가 된 원삼국시기 경주의 사로국, 가야가 되는 원삼국시기 김해 구야국의 성립에 앞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과 형산강유역에서 전개된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 사회를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무문토기의 일종인 금호강·형산강유역의 초기철기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상대편년하고 그 절대연대를 비정하였다.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물레와 같은 성형 도구가 도입되기 이전 무문토기의 일종으로, 사람의 손만으로 만들어져 정형성이 떨어짐으로 형식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기종 가운데 흑도장경호는 동체와 경부의 비율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착목하여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그와 공반되는 철기들을 모두 4기로 상대편년하고, 그 연대를 서기전 2세기 전엽부터 말까지로 비정하였다. 이어서 목관묘의 분포를 대구지역, 경산지역, 경주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목관묘 사회의 계층화와 수장층을 이루는 유력 개인묘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여 사회 발전 단계를 살펴본 바, 대구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이미 읍락들이 결집하여 '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원삼국시기 진·변한의 '국'들은 금오강·형산강유역의 이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사회가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립하고 발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초현기 목관묘 사회는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임돈희 회원은 지난 1년 동안 1편의 저서 출판과 학회의 기조연설와 학술발표,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저서 『유네스코와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 한국은 무형유산 선진국이다』(민속원, 2025.11)은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보다 약 40년 앞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의 경험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정책과 협약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조명하였으며, 한국의 무형유산정책 발전과정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참여한 국내외 현장 경험과 학술적 연구 성과를 폭넓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무형유산학의 이론과 실천을 종합한 연구서이다. 이 저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선 무형유산 보호제도를 발전시켜 온 '무형유산 선진국'임을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 무형유산 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왔던 역사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 책은 2026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임돈희 회원은 제2회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포럼에서 「대한민국 무형유산 정책의 향후 10년」을 주제로 기조발표(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2025.12.09), 민속박물관 특강 「유네스코와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 한국은 무형유산 선진국」(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26.03.16), 무형유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아리랑 무형유산센터 건립 방안」(남원, 2026.05.01),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공동등재 국제학술회의 좌장(진관사, 2026.06.2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포럼(제주, 2026.09.18) 등의 학술발표와 학술회의 좌장으로 회의를 이끌었

으며, 이외에도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위원회 회의(2026.01.16.),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국제집행위원회 화상회의(2026.06.15), 사찰음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전문가 국제자문회의(2026.08.26.) 등 10여 차례의 국내외 학술회의 및 무형유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김호동 회원은 2025년 10월 13-14일 독일 마인츠(Mainz)에서 열린 UAI(국제학술원연합) 제93차 총회에서 4년 임기(2025-2029)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26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학술원에서 열린 UAI 제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차 상임위에서는 2027년 3월 방콕 총회 준비, 장기 학술프로젝트의 평가 방식, 신진연구자 지원제도(ECRA)의 개편 및 국제학술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국제 인문학계의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한편, 서구 중심의 학술 담론 속에서 한국 인문학과 동아시아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호동 회원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미할 비란(Michal Biran) 교수와 함께 책임 편집한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vol.1, 2(Edited by Michal Biran and Hodong 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2024) 중 vol.1이 2026년 4월 사계절 출판사에서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 전3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영문판 1권을 정치사, 주제별 역사, 지역사 및 외부 역사로 나누어 옮긴 것으로, 몽골제국을 단일 민족이나 정복의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라시아 전체의 연결과 교류, 그리고 다양한 정치·문화 전통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국내 연구자와 일반 독자가 국제적 몽골제국사 연구의 성과를 한국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책의 출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한겨레신문(2026.05.01.)에서는 <몽골 제국은 첫 세계화 이끈 유라시아 연방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2026.05.07)에서는 <다른 민족에 문화 강요하지 않은 몽골… '최초의 세계화' 이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서의 소개와 김호동 회원의 인터뷰가 실렸다.

김영식 회원은 2026년 8월 19~21일 사흘간 일본 교토에서 거행된 제8차 한일과학사세미나의 첫날 Round Table에서 「지난 45년간 한국 과학사학계의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한국 과학사학계는 45년 전에 비해 과학사 대학원전공과정의 개설, 과학사 전공자의 증가 등의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내적으로 과학사 학문의 성격도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과학 내용의 변화를 다루는 "내적(internal)" 과학사 위주에서 과학 외적 요인과 배경들을 다루는 "외적(external)" 과학사로, 시기적으로는 전통 시기 또는 19세기 이전 시기 위주에서 20세기와 현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사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과학사 연구 주제도 물리과학, 생명과학, 의학,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연구 시기와 지역 또한 전통과 근현대, 서양과 동양(한국)을 아우르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학문적 수월성과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두가지 흐름이 나타났지만, 양쪽 사이에 큰 마찰이 없이 일종의 분업이 형성되었다. 이외에도 연구방법론에서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 사이의 균형 이외에도, "social constructivism", "cultural studies", "science and empire", "post-colonialism" 등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학사학회의 구성원들이 학계만이 아니라 실무(언론, 정책, 과학문화 사업)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고, 세대간의 단절이 있었던 45년 전에 비해 최근에는 세대 단절 없이 세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면서 학문적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동환 회원은 2026년 6월 21일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에서 「21세기 조선후기사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2001-2025년 25년동안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발표된 저서는 2,757편, 논문은 13,634편이며, 박사학위논문은 323편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학진흥사업단, 규장각,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고전번역원 등 한국학 지원기관이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련 학회와 저널 등도 대폭 늘었고, 각종 연구지원사업도 활성화되어 연구 논저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연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고문서, 일기류의 번역출간, 호적류의 전산화와 온라인 제공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연구경향도 나타났다. 고문서학회, 도시사학회, 여성사학회 등의 학회와 서울학, 인천학, 대구학, 제주학 등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소 등도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학회, 연구소의 창립과 저널의 창간으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생활사, 미시사, 여성사, 도시사,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대폭 늘었다. 또한 단성호적, 대구부호적 등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서 신분제 변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추구되었으며, 주요 가문에서 소장된 고문서들이 발굴 공개되고 번역 출판되면서 향촌사회는 물론 친족집단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그리고 정조 어찰의 공개로 조선후기 정치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각종 의궤류와 동궁일기 등이 번역 출판되면서 조선후기 왕실문화에 대한 연구도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소농사회론>, <19세기 위기론>, <동아시아 담론>과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선후기사를 보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동환 회원은 서울역사박물관 특강(「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생업과 도시문화」 2026.06.12), 절두산순교성지 특강(「양화나루로 읽는 조선후기 서울의 물류와 경제」 2026.08.27)을 행했으며, 절두산순교성지 특강 원고는 『병인박해, 병인양요 160주년기념 특별전 도록-양화나루로 읽는 잠두봉이야기』(절두산순교성지, 2026, pp. 72-79)에 실렸다.

학술교류

APRIM-2026 참가기



李珩睦 會員 (천체물리학)

1. 국제천문연맹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그림 1)은 천문학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학자 전문기구이다. IAU는 1919년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연구협의회(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 창립총회를 계기로 출범하였다. 당시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천문 관측과 연구를 국제적으로 조정하고, 천체의 명칭과 천문학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제기구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하나의 하늘 아래(Under One Sky)'라는 주제로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림 1] 국제천문연맹의 공식 로고. 영어 명칭의 약자인 IAU와, 또 하나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명칭 Union Astronomique Internationale의 약자인 UAI가 겹쳐 표현되어 있다.

IAU의 기본 목적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천문학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천문학 연구뿐 아니라 학술교류, 교육, 과학문화 확산,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IAU는 천체와 천체 표면 지형의 공식 명칭을 정하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다. 행성, 위성, 소행성 및 이들 천체의 지형에 대한 명명 원칙을 마련하고 공식 명칭을 승인함으로써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천문 상수, 좌표계, 시간 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천문학적 기준을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AU는 전 세계의 전문 천문학자로 구성된 개인회원과 각국의 천문학계를 대표하는 국가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현재 개인회원과 젊은 연구자 회원을 합하여 약 1만 3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에 IAU 회원국이 되었으며, 2026년 현재 222명의 천문학자가 IAU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천문대를 대표 기관으로 하는 Observer 회원국이며, 등록 회원은 1명이다.[1)]

개인회원들은 연구 분야에 따라 9개의 학술 분과(Division), 전문위원회(Commission),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한다. 주요 정책은 3년마다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결정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가 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학연구소(Institute d'Astrophysique de Paris, IAP)에 자리하고 있다.

IAU의 대표적인 활동은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와 지

1) https://www.iau.org/Shared_Content/Contacts/OrganizationLayouts/Organization_Profile.aspx?ID=23852

원이다. 매년 여러 차례의 IAU 심포지엄을 열어 천문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대규모 심포지엄, 주제별 집중회의 및 분과별 학술회의가 함께 열린다. 총회는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주요 천문학적 정의와 국제 기준, 조직 운영 및 장기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5년 하와이에서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2021년 제31차 총회를 부산 BEXCO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1년 연기되어, 2022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IAU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된 총회였다. 한국에 앞서 아시아에서 IAU 총회를 개최한 국가는 인도(1985년), 일본(1997년), 중국(2012년)뿐이었다.

최근 IAU의 활동 범위는 전문 연구를 넘어 교육, 대중 소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문학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과학 역량을 높이는 천문학발전국(Office of Astronomy for Development),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천문학홍보국(Office for Astronomy Outreach), 학교 천문교육을 지원하는 천문학교육국(Office of Astronomy for Education), 젊은 천문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IAU는 「2020–2030 전략계획」을 통하여 연구 교류뿐 아니라 교육과 개발, 포용성과 다양성, 젊은 연구자 지원, 과학의 자유와 책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IAU는 천문학 분야의 국제 학술단체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적 기준과 명칭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세계 천문학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형 관측시설과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 천문학에서 IAU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연구자들을 연결하고, 천문학의 성과가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Asia-Pacific Regional IAU Meeting, APRIM)는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학술회의이다. 특정 연구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IAU 심포지엄과 달리, APRI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천문학자들이 여러 연구 분야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젊은 연구자와 천문학 기반이 성장 중인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국제적인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1. APRIM의 시작과 발전

APRIM은 1978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현대 천문학 연구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관측시설과 천문학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내 국가들의 지리적 거리가 멀고 연구 환경의 격차도 컸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학술회의가 필요하였다. APRIM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창설되었으며, 이후 대체로 3년 간격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APRIM은 표 1과 같이 개최되었다. 특히 1987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APRIM 당시에는 한·중 수교 이전이어서 한국 참가자들의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는 홍콩에서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귀국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천문학자들도 참가하여 남북한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표 1] 역대 APRIM 개최 연도와 개최지 목록

회차	연도	개최지
제1차	1978	웰링턴, 뉴질랜드
제2차	1981	반둥, 인도네시아
제3차	1984	교토, 일본
제4차	1987	베이징, 중국
제5차	1990	시드니, 호주
제6차	1993	푸네, 인도
제7차	1996	부산, 대한민국
제8차	2002	도쿄, 일본
제9차	2005	발리, 인도네시아
제10차	2008	쿤밍, 중국
제11차	2011	치앙마이, 태국
제12차	2014	대전, 대한민국
제13차	2017	타이베이, 타이완
제14차	2020	퍼스, 호주 (코로나19로 취소)
제15차	2023	고리야마, 일본
제16차	2026	홍콩

이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APRIM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왔다. 한국은 1996년 부산에서 제7차 회의를(조직위원장: 이형목), 2014년 대전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대전 회의는 한국 천문학계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서 IAU 총회와 심포지엄을 비롯한 주요 국제천문학 행사를 유치하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APRIM은 대체로 3년마다 열렸으나, 모든 시기에 정확히 3년 간격이 유지된 것은 아니다. 1996년 부산 회의 이후 다음 회의는 2002년에 열렸으며, 2020년에 예정되었던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되었다. 이후 2023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에서 APRIM 2023이 개최되면서 대면 지역 회의가 재개되었다. 일본에서 APRIM이 열린 것은 1984년 교토와 2002년 도쿄에 이어 세 번째였다.

가장 최근 회의인 APRIM 2026은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천문학과 천체물리학뿐 아니라 우주과학, 우주 지속가능성, 천문교육, 대중홍보와 과학소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행사는 기조강연, 분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 패널토론, 워크숍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자와 학생 수백 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APRIM이 단순한 연구 발표회를 넘어 지역 천문학 공동체 전반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학술·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3. APRIM의 성격과 주요 역할

IAU 지역회의는 보통 IAU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되며, 해당 지역의 국가 천문학회 등의 초청을 받아 개최된다. 다음 개최지는 일반적으로 현 회의가 끝날 때 지역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IAU

가 개최지를 직접 선정하거나 반드시 공식 승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정된 개최지와 조직위원회는 IAU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실제 회의 운영은 개최국의 지역조직위원회가 주도하며, IAU는 회의의 국제적 지위와 학술적 연계를 뒷받침하고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APRIM의 가장 큰 특징은 다루는 연구 분야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하나의 전문 주제에 집중하는 IAU 심포지엄과 달리 APRIM에서는 태양과 태양계, 별의 형성과 진화, 성간물질, 은하와 은하계,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중력파와 다중신호 천문학, 우주론, 관측기기, 데이터과학, 천문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이 동시에 논의된다. 따라서 학술조직위원회의 규모와 참가자 수도 일반적인 IAU 심포지엄보다 큰 편이다.

또한 APRIM은 다음과 같은 지역적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대형 관측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 지역에는 Subaru, FAST, LAMOST, KAGRA, ASKAP, KVN을 비롯한 다양한 관측시설이 있으며, ALMA 등 대형 국제시설에 참여하는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진도 다수 분포해 있다. APRIM은 이와 같은 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미래 관측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둘째, 천문학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적인 대형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전문 천문학자와 연구시설이 아직 부족한 국가도 있다. APRIM은 후자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국제적인 연구망에 참여하고 교육·훈련 및 공동연구 기회를 얻도록 지원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돕는다. IAU는 지역회의가 젊은 천문학자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RIM에서는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여행경비 지원, 멘토링, 경력개발 및 연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넷째, 천문학 연구를 교육, 대중소통 및 사회적 발전과 연결한다. 최근 회의에서는 천문교육, 천문학을 통한 개발, 여성과 소수집단의 참여, 원주민 천문지식, 어두운 밤하늘의 보호, 위성군과 우주쓰레기 문제 등 천문학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4. IAU의 다른 지역회의

현재 IAU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회의는 세 종류이다.

- APRIM: Asia-Pacific Regional IAU Meeting
- LARIM: Latin American Regional IAU Meeting
- MEARIM: Middle-East and Africa Regional IAU Meeting

APRIM과 LARIM은 모두 1978년에 시작되었고, MEARIM은 2008년에 창설되었다. IAU는 원칙적으로 두 IAU 총회 사이의 기간에 이 세 지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지역회의를 후원한다.

LARIM(Latin American Regional IAU Meeting)은 라틴아메리카 천문학계를 대표하는 지역회의이다. 남미와 중미의 천문학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 행사로 발전하였다. 2023년 11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7차 LARIM이 열렸으며, 제18차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LARIM은 특히 칠레의 대형 관측시설을 비롯한 지역의 뛰어난 관측환경과 연구 성과를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인력 양성 및 연구 발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EARIM(Middle-East and Africa Regional IAU Meeting)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천문학 교류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되었다. 제1차 회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서 열렸다. 2023년에는 다시 카이로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제7차 MEARIM은 2025년 11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천문학 연구기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교육, 연구시설 활용 및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2028년 차기 개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유럽 지역 IAU 회의(European Regional IAU Meeting)도 개최되었다. 유럽 지역회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1983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7차 회의가 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유럽남방천문대(ESO), 유럽우주국(ESA), 유럽천문학회(EAS) 등 독자적인 지역 협력기구와 대규모 학술회의 체제가 발달하면서, 현재 IAU가 열거하는 공식 지역회의에는 APRIM, LARIM 및 MEARIM의 세 종류만 포함된다.

5. 제16차 APRIM (APRIM 2026)

제16차 APRIM인 APRIM 2026은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장소는 홍콩섬 완차이에 위치한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HKCEC)이며,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산하 Laboratory for Space Research(LSR)가 지역조직위원회와 함께 대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Science, Cooperation and Friendship”으로, 첨단 천문학 연구성과의 교류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자 간 협력과 우호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고, 중국을 상징하는 용이 원형으로 별과 은하를 감싸는 모습의 공식 엠블렘(그림 2)도 일찌감치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림 2] APRIM-2026의 공식 엠블렘. 용이 별과 은하를 둘러싸고 있으며, 홍콩의 상징인 고층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APRIM 2026의 핵심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천문학·천체물리학·우주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및 기관 간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연구자들이 새로운 공동연구 기회를 발굴하고, 대형 관측시설 및 우주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자들의 경력 단계와 국적에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포용적 학술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수월성뿐 아니라 교육, 국제협력, 과학소통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번 회의는 천문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전통적인 학술회의를 넘어, 차세대 대형 관측시

설과 우주탐사,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향후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1. 주요 학술 프로그램

APRIM 2026에서는 은하·우주론에서부터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중력파, 별과 행성, 전파천문학, 천문관측 및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현대 천문학의 주요 연구분야를 포괄하였다. 공식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주요 주제가 제시되었다.

1. 천문학 교육·대중소통 및 과학문화
2. 은하, 활동성은하핵(AGN) 및 고적색편이 우주
3.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4. 중력파 천문학
5. 별과 행성의 생애
6. 전파·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천문학
7. 천문 탐사 및 시간영역 천문학
8. 현재 및 차세대 대형 천문시설
9. 우주 지속가능성(Space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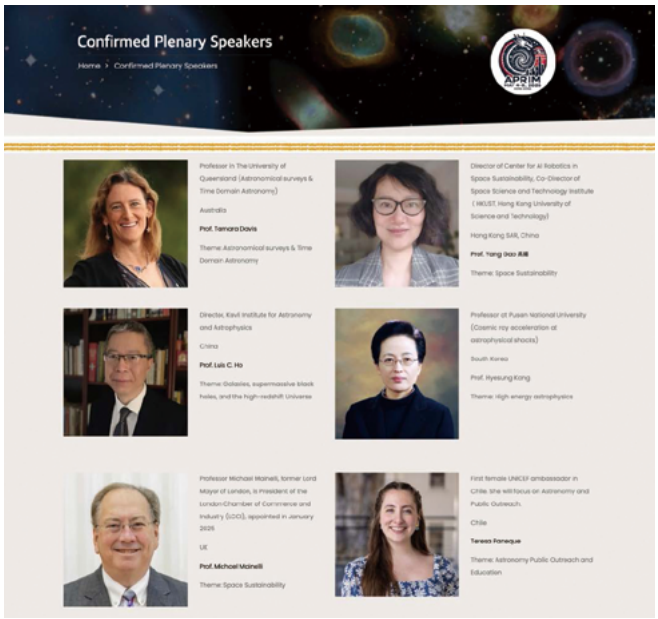
이와 같이 APRIM 2026은 순수 천문학 연구뿐 아니라 우주탐사와 우주환경, 교육 및 과학소통까지 포괄함으로써 현대 우주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학술회의의 성격을 갖추었다. 특히 첫 번째 주제로 '천문학 교육·대중소통 및 과학문화'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천문학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2. 주요 연사 및 국제적 구성

학술 프로그램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참여하였다. 플레너리 연사는 한국, 중국, 호주, 미국, 홍콩,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16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노벨상 수상자 1명(호주의 Brian Schmidt, 그림 3), 홍콩의 Shaw Prize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Shaw Prize 수상자 3명(호주의 Matthew Bailes, 미국의 Shri Kulkarni, 캐나다의 Victoria Kaspi), 그리고 미국의 Gruber 재단에서 수여하는 Gruber 상 수상자 1명(영국의 Max Pettini)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역대 APRIM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경력을 지닌 플레너리 연사진이었다. 한국인 플레너리 연사는 부산대 강혜성 교수(그림 4)이며, 현재 국제천문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림 3] 첫 번째 기조강연을 하는 노벨상 수상자 Brian Schmidt 호주 국립대 교수



[그림 4] 플레너리 연사 목록 일부. 오른쪽 열 가운데가 한국의 강혜성 교수

한 사람당 2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는 초청 강연자는 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손정주(교원대), 박창범(고등과학원), 이형목(서울대), 김효선, 변도영, 천무영(이상 천문연구원) 등 여섯 명이었다. 그림 5에는 한국 측 초청 연구자 일부의 발표 장면을 보여준다.

APRIM이 지역 회의인 만큼 연사 선정에서 국가별 안배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한국은 중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초청연사 수로 보아 상위 그룹에 속한다.

그 밖에도 290개 정도의 일반 발표가 있었고, 이들을 모두 소화하기 위하여 5개의 분과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발표가 다른 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듣고 싶은 발표를 모두 듣기 어려웠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1996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7차 APRIM이 단일 세션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연구도 다른 학문 분야와 함께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APRIM의 양적·질적 성장을 잘 보여준다.

APRIM 2026은 단순한 학술발표회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SKA 관련 특별 워크숍, 천문학 커뮤니케이션 포럼, 우주탐사 관련 특별회의 등 여러 분과 세션을 마련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였다.

또한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환영행사와 컨퍼런스 디너 등 사회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를 활용한 크루즈 형태의 만찬 등은 참가자들의 교류와 지역 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천문학과 문화예술의 융합도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 홍콩 출신 유명 음악가인 Shirley Choi가 “Hong Arts without Boundaries Foundation(香港共融藝術音樂協會)”의 후원을 받아 APRIM 2026을 위해 작곡한 “The Cosmic Concert - A Journey Through Space in 10 Parts”라는 관현악곡의 초연이 홍콩대학교 공연장에서 열렸으나 시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와 우주론을 주제로 한 특별 음악 공연과 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천문학의 대중적 접근성과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림 5] 이번 APRIM에서 강연하는 한국인 초청 연사들. 왼쪽이 천문연 변도영 박사, 오른쪽은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이다. 나머지 초청 연사인 이형목(서울대), 천무영, 김효선(이상 천문연구원), 손정주(교원대)의 사진은 찍지 못해 싣지 못한다.

6. 의의 및 시사점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천문학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대형 지상망원경, 우주망원경, 전파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와 대규모 계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도 천문학 교육과 연구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APRIM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지역 전체의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PRIM은 단순히 3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라기보다, 아시아·태평양 천문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연구자와 기관, 국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역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IAU 총회가 전 세계 천문학계의 최고 의사결정 및 학술교류의 장이라면, APRIM을 비롯한 지역회의는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각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구현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APRIM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연구자가 모이는 데 있지 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범분야 지역회의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 천문학계 역시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젊은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PRIM 2026이 끝날 무렵, 베트남이 2029년 차기 APRIM의 유일한 유치 희망국으로 나섰다. 별도의 경쟁국이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PRIM 개최가 베트남 천문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 역시 3년 후 다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술교류

제38차 세계사회경제학회 (SASE) 연례 대회 참가기

林玄鎭 會員 (사회학)



I. 프랑스 개관

제38회 세계사회경제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Economics: SASE) 연차대회가 프랑스 보르도 (Bordeaux)의 시앙스포 (Sciences Po)에서 2026년 7월 1일~4일 사이 나흘간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분열을 이겨내기: 후기 (後期) 세계화 질서 아래 갈등과 권력" (Fighting Divisions: Conflict and Power in a Post Globalization Order)이었다. 오늘의 세계질서는 혼탁하고 불안하다. 크고 작은 갈등이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전쟁, 테러, 분규 형태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강대국 중심의 국가주의가 판치는 가운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후재난, 경기침체, 민생악화, 사회갈등 (세대·젠더·계급)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질서 (world disorder)의 배후에 있는 트럼프와 푸틴은 문명파괴나 핵전쟁이라는 야만적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자·이란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를 넘어 글로벌 노스 대 글로벌 사우스 형태로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의 산지인 보르도는 가론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랑스 남부 최대의 도시이다. 도시의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달의 항구'라고도 불린다. 일찍이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100만의 '작은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을 자랑한다. 백년전쟁 이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뒤, 식민제국의 관문으로 각종 물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 (Victor Hugo)는 "베르사유와 엔트워프를 가져라. 우리에겐 보르도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을 정도이다.

프랑스에는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코트 뒤 론, 알자스, 루아르 등 유명한 와인 산지가 여럿 있다. 이 중 보르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메독, 그라브, 생테 밀리옹, 마르고 등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와인 산지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급 포도주를 생산한다. 포도주의 삼분의 이 이상이 레드와인이다. 최근에는 단일 품종의 적포도주도 만들기 시작했지만, 과거에는 주로 카바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섞어 만들었다. 그래서 단일 품종의 부르고뉴 와인이 '몰트 위스키'라면, 여러 포도를 섞은 보르도 와인은 '블렌디드 위스키'에 비유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과 68학생운동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주로 프랑스의 평준화된 대학을 모델로 두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고등교육을 프랑스의 전국 대학처럼 제1, 제2, 제3대학 식으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이 평준화뿐만 아니라 이원화된 제도를 함께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 공립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지만, 일반 공립 대학이 아닌, 소수 정예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 (Grandes Écoles)이 따로 있다. 일반 대학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진학할 수 있다. 반면 그랑제콜

은 고등학교 졸업 후 프레파 (classes preparatoires aux grandes ecoles)와 콩쿠르라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다. 평준화되어 있는 일반 공립대학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수월성을 강조하는 그랑제콜은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을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분할했다. 파리의 경우 1970년부터 고유명칭을 버리고 1-13대학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워 최근에는 여러 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4대학교와 파리 제6대학을 소르본 (Sorbonne)으로 합병하였고, 파리 5대학과 7대학을 시테 (Cité)로 결합하였다. 마크롱 정부에 들어와서는 복지재정의 악화에 따른 대학의 예산감소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 대학을 전국적으로 평준화시켰다고 하지만 교육과 연구에서의 지역 격차는 남아 있다. 영미식 대학과의 경쟁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시 교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대학과 달리 소수 정예의 고급 전문기술인 엘리트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그랑제콜을 도입했다. 그랑제콜은 학문 탐구 위주의 일반 대학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실무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일반 대학 위에 그랑제콜이 있다. 프랑스 전국에 대략 250여 개가 있으며 매년 약 2만명을 선발한다. 1인당 투자 예산이 일반 대학보다 몇 배는 높고 입학도 매우 어렵다. 그랑제콜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인문은 사르트르, 푸코, 부르디외, 데리다 등을 배출한 파리 고등사범학교 (ENS), 공학은 에콜 폴리테크니크 (Ecole Popitechnique), 에콜 데 민파리 (Mine Paris), 에콜 데 퐁 파리테크 (Ecole des Ponts ParisTech)에서 가르친다. 경영은 HEC 파리 (HEC Paris), 에섹 (ESSEC), 에스씨피 (ESCP). 행정과 정치는 국립행정학교 (INSP)[1], 정치는 시앙스포 (Science Po)에서 가르친다. 정치대학인 시앙스포는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그랑제콜과 대학 사이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독특한 기관이다.

그랑제콜은 프랑스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학벌주의가 강하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탕, 시라크, 올랑드, 마크롱 등의 정치인이나 데리다, 피케티, 아롱, 사르트르 등의 학자를 배출했다. 부르디외가 『국가귀족』(*La Noblesse d'Etat*)에서 그랑제콜은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상층 이상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화자본, 언어능력, 시험준비 등의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특권을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맥락과도 상통한다. 특히 프레파와 콩쿠르 제도는 '순수한 실력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래서 그랑제콜 출신자는 단순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서 국가, 대기업, 학계, 언론, 문화권력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상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국립정치학연구재단 (FNSP) 산하의 정치대학은 10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948년 출범한 시앙스포 (Science Po) 보르도는 그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당 분야의 세계적인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 (Maurice Duverger)가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총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마크롱 정부의 베르나르 까즈뇌브 (Bernard Cazeneuve) 총리도 보르도 정치대학 출신이다.

1) 기존 ENA가 2022년 폐지되고 INSP로 재편되었다.

II. 제38차 연례회의 프로그램

A. SASE의 역사와 전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학, 심리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SASE는 1989년 에치오니 (A Etzioni)의 주도 아래 미국 캠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에서 창립되었다. 주류 사회과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이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구조, 정치체제, 경제제도, 문화양식, 종교의식 등이 인간행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하기 위한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로 출발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동태와 모순에 대한 여러 사회과학 분과 사이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계급갈등, 시민참여, 사회운동, 복지국가, 거버넌스, 민주주의, 가치사슬,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AI혁명 등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방적 논리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국가간, 지역간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극우 혹은 극좌 포퓰리즘의 등장과 이와 연관된 정치경제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SASE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50여개 나라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 런던, 파리, 밀라노, 암스테르담, 교토, 메디슨, 뉴욕, 리오데자네이로, 몬트리올 등을 순회하며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에서 두 번, 미국에서 한 번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에서 한 번 열린 정도에 그쳤다. SASE는 공식 학술지로 *Socio-Economic Review*를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거장이라 할 Roger Hollingsworth, David Marsden, Colin Crouch, David Stark, Michael Piore, Kathleen Thelen, Gary Herrigel, Santos Ruesga, Virginia Doellgast 등이 회장으로 일했다. 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ASE의 최고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

III. 제38차 연차회의 소개

A. 전체 프로그램

SASE 연차회의의 특징은 본 회의에 앞서 사회과학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정책입안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사전회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6월 23일-24일 양일 간 화상으로 사전회의를 했다. 그리고 본 회의는 7월 1일~4일에 열렸다. 세계적인 와인의 산지인 보르도가 지니는 매력으로 인해 78개 국가에서 1,775명이 참석하여 총 2,09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역대 연차회의 중 가장 많은 발표 논문 숫자이다. SASE는 공식적으로 별도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갖지 않는다. 올해는 SASE 회장의 Presidential Address와 주요 이슈를 다루는 Presidential Panel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2개의 Research Network (RN), 21개의 Mini Conference (MC)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Featured Event와 Book Salon으로 구성되었다.

SASE의 현 회장인 Roberto Pedersini (University of Milan)는 7월 2일 목요일 6시에 학회를 대표하여 인사를 겸한 연설을 하였다 ([사진 1] 참조). 그는 유럽의 문명교차가 일어난 보르도에서 학회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르도 지역이 지니는 명성 덕분에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논문이 신청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에밀 뒤르켐 (E Durkeim)이 Science Po Bordeaux와 인접한 보르도 대학 (University of Bordeaux)에 재직하면서 분업론, 방법론, 자살론 3

[표 1]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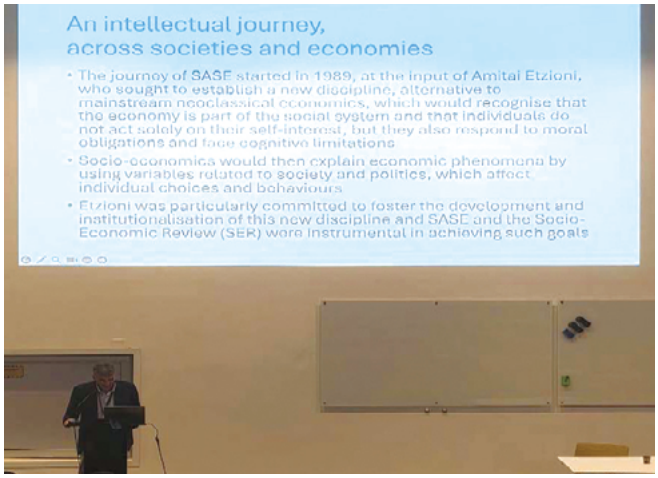
시간	수(7.1)	목(7.2)	금(7.3)	토(7.4)
07:30 - 08:30			**Featured Events:** SASE Annual Member Meeting	
08:30 - 10:00	**Research Network:** C·D·E·G·I·L·M·O·S **Mini Conference:** MC01·MC04·MC09·MC12·MC18·MC19·MC21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U·V **Mini Conference:** MC01·MC02·MC18 **Book Salon:** A·E·J·K·O	**Research Network:** A·B·D·E·G·H·J·K·L·N·O·P·Q·R·S·U·V **Mini Conference:** MC03·MC07·MC11·MC17·MC19 **Book Salon:** A·K **Featured Events:** Robert Boyer	
09:00 - 10:30				**Research Network:** A·B·C·F·H·J·K·N·P·Q·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MC17
10:30 - 12:00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8·MC21 **Book Salon:** D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Panel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 **Book Salon:** B·D·H·N **Featured Events:** Philippe Steiner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MC17 **Book Salon:** J·K·P·MC05 **Featured Events:** Featured Panel	
11:00 - 12:30				**Research Network:** A·B·C·H·J·K·N·P·Q·V **Mini Conference:** MC03·MC07·MC11·MC17 **Book Salon:** V
12:00 - 14:15			**Research Network:** Network Organizer Forum Lunch (closed session)	
14:15 - 15:45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6·MC18·MC21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Panel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MC17 **Book Salon:** E·L **Featured Events:** WAG Forum / SER Meet the Editors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 **Book Salon:** J·L·MC11 **Featured Events:** Surbhi Kesar	
16:00 - 17:30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5·MC18·MC20 **Book Salon:** Featured L·T **Featured Events:** Featured Book Salon			
16:15 - 17:45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MC05·MC17 **Book Salon:** P·T·U·MC05·MC17 **Featured Events:** Lara Monticelli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5·MC07·MC11 **Book Salon:** E·N·O·T·U·Featured **Featured Events:** Featured Book Salon	
17:45 - 19:15	**Research Network:** C·D·E·G·I·L·M·O·S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9·MC12·MC15·MC16·MC18·MC20 **Book Salon:** E			
18:00 - 19:30		**Research Network:** A·B·C·D·E·F·G·H·J·K·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2·MC17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Address	**Research Network:** A·B·D·E·F·G·H·J·K·L·N·O·S·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 **Book Salon:** E **Featured Events:** Bordeaux Wines Panel	
20:00 - 22:00		**Featured Events:** Robert Boyer		

Research Network Mini Conference Book Salon Featured Events Times shown in local Bordeaux time

주: 알파벳은 각 Research Network를 의미함

- **A** = Community, Democracy, and Organizations
- **B** = Globaliz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 **C** = Gender, Work and Family
- **D** = Professions and Expertise
- **E** = Comparative Capitalisms
- **F** = KITE: Knowledge, Innovation,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 **G** = Labor Market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 **H** = Markets, Firms and Institutions
- **I** = Alternatives to Capitalism
- **J** = Digital Economy
- **K** =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in the Regulation of Work and Employment
- **L** = Regulation and Governance
- **M** = Spanish Language
- **N** = Finance and Society
- **O** = Global Value Chains
- **P** =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 **Q** = Asian Capitalisms
- **R** = Islamic Moral Economy and Finance
- **S**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T** = Health
- **U** = Postcolonialism and Legacies of Empire
- **V** = Geoeconomics

부작을 출간한 것을 환기했다. 학술조직으로서 SASE의 성장은 사회경제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다룰 수 있는 포용성과 분석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SASE의 22개 리서치 네트워크 (RN)는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 정치 및 경제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학회지 *Socio-Economic Review*를 통해 발표해 왔다. 지금의 위태롭고 격변하는 세계질서 아래 SASE 연차회의가 기후변화, AI 혁명, 계급변화, 젠더갈등, 알고크라시, 기술파시즘 등의 주제와 관해 냉철한 진단과 유익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1] Roberto Pedersini 회장의 연설

Presidential Panel: I. The Past and Future of Economic Sociology: 7월 1일 (수요일) 10:30-12:00 및 II. Economic Sociology and Transnational Markets: 7월 1일 (수요일) 14:15-15:45.

사회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이라 할 경제사회학은 지난 30여 년간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경제를 포섭해야 한다"라는 폴라니 (K Polany)의 관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만연한 시장만능주의에 맞서고자 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경제사회학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세션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특별 세션은 Marc Schneiberg (Reed College)의 사회로 세 명의 경제사회학자들—Marion Fourcade (UC Berkeley), Josh Whitford (Columbia), Christine Musselin (Sciences Po)—이 경제사회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M Fourcade는 신경제사회학이 1980-90년대에 시장 자유주의와 주류 경제학의 영향력이 확대되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고 회고했다. 초기 연구는 경제행위의 사회적 배태성, 제도적 경로의존성, 문화와 네트워크를 강조한 합리적 선택 모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내재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경제사회학의 연구 범위는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한 금융화, 디지털 플랫폼, 인종자본주의, 심화되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어 권력과 국가, 자본주의가 다시 핵심 연구 주제로 부상했다. 그 결과 경제사회학은 정치경제학에 한층 가까워졌으며, 시장이 정치적·제도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 유지,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국가가 시장을 구성하고 재편하는 방식에 관한 경제사회학의 오랜 통찰은 오늘의 세계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osh Whitford는 경제사회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불확실성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불확실성은 경제적 조정과 행위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정치적·환경적 불확실성은 향후 연구를 조직하는 생산적인 중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Christine Musselin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만을 경제사회학의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가격이 중심적인 조정기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환의 장과 형태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전시킬 것

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특별 세션은 Valery Yakubovich (Wharton)의 사회로 네 명의 경제사회학자 및 경영학자들—Johanna Mai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Tim Bartley (Georgetown University), Steven Casper (Keck Graduate Institute), Leonard Seabrooke (Copenhagen Business School)—이 참석하여 경제사회학과 초국가 시장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했다. 경제사회학은 시장이 제도적으로 구획된 단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네트워크를 주로 연구해 왔다. 그렇다면 경제사회학은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금융, 법률, 생산,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초국가적 시장을 어떻게 다루는가? 참가자들은 초국가적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모든 참가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책임성,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적 제도와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기존 경제사회학의 이론과 분석의 틀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가 고용과 부의 분배와 같은 사회학의 핵심 연구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경제사회학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경제사회학은 세계화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경제사회학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질문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학회장 특별 세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에게 아시아의 관점에서 초국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38차 연차회의의 환영 행사는 7월 1일 수요일 8시에 아름다운 가론강을 내다보는 Hangar 14에서 열렸다. 대략 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에서 활동하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연구자, 활동가들도 약 20여명 참석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사진 2] 참조).



[사진 2] 환영 행사에 참석한 한국측 참가자들 *왼쪽부터 J Doucette 교수 (Mancester대), 임현진 교수 (서울대), 김석 정책실장 (민주노총), 양명지 교수 (Hawaii대), 박명준 박사 (노동연구원) 등.

B. 주요 회의 소개

RN E Comparative Capitalisms [Trade Unionism and Economic Change]: 7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인도, 영국, 캐나다, 한국을 사례로 하는 네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 중 박명준 박사 (한국노동연구원)가 “Reconfiguring Social Dialogue in South Korea: Toward a Plural and Multi-Level Regime”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연구자인 박 박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사회적 대화가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중심의 단일한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국회, 정부

부처, 정당, 산업 및 지역 단위 등 다양한 수준과 공간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기존 사회적 대화의 약화나 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전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 주체의 다원화와 다층화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개혁 의제의 변화,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제도적 적응, 강한 정부 등장에 따른 사회적 대화 기능의 변화, 국회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대, 그리고 산업·지역 수준의 중간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미래는 하나의 대표기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사노위와 국회의 사회적 대화 위원회, 정부 정책협의체, 산업·지역 단위 협의기구 등 서로 다른 대화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정되는 다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의와 응답에서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 있는 노동운동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사회적 대화의 유기적 다원화의 이상과 달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파편화와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경제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향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이다.

RN Q Asian Capitalism [Tracking Transitions in Asian Statecraft]: 7월 2일 (목요일) 오후 14시 15분-15시 45분.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역설 아래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복합 위기 (poly-crisis) 속에서 변화하는 국가 운영 (statecraft)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션은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에 따른 안보위기라는 최근 맥락에서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짚어보았다.

Thomas Kalinowski (이화여대)는 최근 K-방산의 성공이 단순한 시장 경쟁력의 결과이기보다 지난 세기 이후 형성된 발전국가적 제도 아래 정부-재벌 관계가 재구성되면서 나타난 경로의존적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Guillaume Larrouturou (프랑스 소르본 파리 노르 대학)은 일본 금융감독청의 설립과 이후 진화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규제국가적 전환은 발전국가 관료제의 핵심 논리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럽형 규제국가로의 수렴과는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Moisés Balestro (University of Brazilia)는 한국은 발전국가의 진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위한 물적, 제도적 조건을 조성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환이 사회안전망의 분절, 각종 격차의 재생산을 초래하면서 복지국가 전환을 여전한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Dennis McNamara (Georgetown대)는 중국 장쑤성 昆山의 '지역기업가 국가' (local entrepreneurial state)의 사례를 통해 양쯔강 델타지역에서 지역적 수준의 통합과 가치사슬 형성이 산업 발전에서 기여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임현진 (서울대)과 이준구 (한양대)는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Korea-Japan Linkage in Global and Regional Value Chains"에 관해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역 간 분업구조 아래 교역, 투자, 외주에 기반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가능했다. 일본이 전후 산업화를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선도했다면, 한국은 그 길을 뒤따라가며 초기에는 일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술과 경영을 습득했고 최근에는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통해 일본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가치사슬

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일본에 의존해 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와 외주를 통해 독자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한국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투자와 생산 철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공유' (ally-sharing)라는 정책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기술선도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간 네트워크가 전기차와 AI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급망 블록화와 새로운 기술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의 부상 이후 결속이 약화되었던 한-일간 가치사슬 관계가 재부각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지역내 교역 구조의 반등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세션을 마무리하는 최종 논평에서 아시아 지역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민주화의 진전, 복지제도의 확충, 시민사회의 성장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압력 아래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일본은 신케인주의적 발전국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적 발전국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3] 세션 발표자들(필자는 사진 촬영)

RN Q Asian Capitalism [Navigating Post-Globaliaztion in East Asia: Democratic Turbulance Amidst Geo-Strategic Realignmen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오늘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경제적 과제를 다루었다. 이 세션은 2024년 12월의 계엄사태 이후 한국이 겪고 있는 진영대립과 정치적 양극화 아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미중 전략경쟁 아래 한반도의 위상, 북한의 두 국가론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 비상사태의 재발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등 주택정책 등에 대한 소재를 폭넓게 다루었다. 전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섯 편의 논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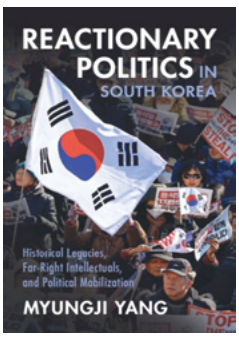
- Jamie Doucette (University of Manchester), Reconsolidating Democracy amidst turbulence: Contemporary challeng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Jinsoo Lee (University of Manchester), Geo-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Investigating the geopolitics of the Korean far-right and its challenges within the US-China rivalry
-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apital Logics and the Pitfalls of Liberal Peacebuilding
- Jong-chol An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Emergent Measure in the Case of Emergency?: Comparative Studies of the Two Martial Law Cases in 1979-80 and 2024
- Sung Eun Choi (연세대), How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housing policy shape housing inequality outcomes in East Asia

Featured Panel. Bordeaux's Wines in Crisis: A New Blend of Economics, Ecology and Politics: 7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그러나 명성에서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앞선다. 와인 애호가라면 평생에 한번, 보르도 와인 중 최고급 5대 포도주인 샤토 무똥 로칠드 (Chateau Mouton Rothschild), 샤토 라피트 로칠드 (Chatoeau Lafite-Rothschild), 쌰토 라뚜르 (Chateau Latour), 샤토 마고 (Chateau Margaux), 샤토 오르리옹 (Chateau Haut_Brion) 중 최소 한두 가지를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계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가 최근에는 생산, 판매, 유통의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수십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포도 작황이 들쑥날쑥하면서 가격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남미 등 신세계 와인의 등장의 영향도 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는 농약 사용을 줄이려 하지 않고, 낡아빠진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고, 여전히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AOC) 방식의 품질 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 책정, 품질 관리, 유통 개선, 수출 변화 등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 도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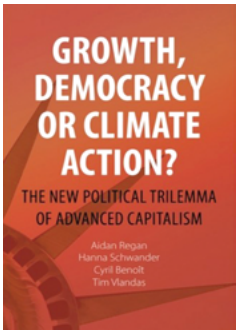
Book Salon에서 논의된 몇 가지 근간 저서를 소개한다.

(1) *Reactionary Politics in South Korea: Historical Legacies, Far-Righ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Mobilization*, by Myungji Ya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오늘날 반 (反) 자유주의적인 극우 정치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위헌적 계엄령 선포 이후 시민적 결사와 저항에 의해 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성없이 더욱 보수화되고, 시민사회가 갈라지면서 일부 청년의 극우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저서는 '왜 일반 시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계엄령을 지지하는가?'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물으며 1년 반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치 유산과 극우 집단의 사상과 행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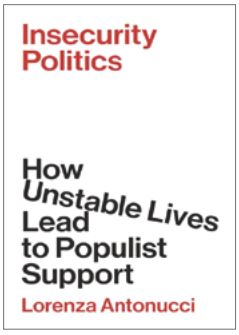
(2) *Growth, Democracy or Climate Action? The Trilemma of Advanced Capitalism*, by Aidan Regan and Hanna Schwander, Agenda Publishing, 2026.



이 저서는 현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핵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민주적 정통성,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방식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현상을 유지 (the Liberal Status Quo)하면서 자기조정적 시장과 관료기술적 제도는 성장줄이기 (degrowth)를 추진하기 어렵다. 거대한 녹색국가 (the Big Green State)는 관료기술적 제도나 과학적 처방을 잘못 위치시킨다. 이처럼 세가지 방식은 조직화된 정치적 갈등의 중심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자유주의 틀 안에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며 현대 국가의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비교정치경제학이 생태적 이행을 정치의 선차적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유의미하다.

(3) *Insecurity Politics: How Unstable Lives Lead to Populist Support*. by Lorenza Antonucc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6.



이 저서는 정치적 불만을 가져오는 매일 매일의 생생한 경험을 다루고 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단순히 아웃사이더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차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일상적 노동의 현실과 재정적 불안정 사이에서 좌우 포퓰리즘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유럽 국가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반 (反) 체제적 정치를 가져오는 미시 수준의 물질적이고 문화적 동학을 분석하여, 일자리에서의 불만과 재정적 불안의식의 증가가 현실정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논증한다. 복지국가의 구조적 전환과 문화적 전환의 뿌리를 추적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분석을 결합하여 반체제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진화하는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IV. 나가며

올해 유럽의 여름은 뜨겁다 못해 펄펄 끓었다. 열돔(heat dome)으로 인한 40도 안팎의 폭염으로 지금까지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에어컨 설치를 두고도 이념공방이 펼쳐졌는데, 우파는 환경규제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공격했고, 좌파는 냉방확대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에어컨 사용하면 '극우'요, 부채 쓰면 '좌파'라는 일차원적 단순 논리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분법 하에서 기후위기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이 80%가 넘는 것에 비해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3% 정도에 그친다.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존관념과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생태의식이 결합된 결과이다. Science Po Bordeaux의 회의실도 에어컨 가동이 충분치 않아 창문을 열어두고 부채를 사용하며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 4] University of Bordeaux-Montaigne 한국학 교수들과 함께
* 왼쪽 Stephane Couralet 교수 (언어학)
그리고 오른쪽 Damien Peladan 교수 (고려사).

Science Po Bordeaux는 University of Bordeaux-Montaigne에 붙어 있다. 사회학의 3대 비조 중 하나인 E Durkeim이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핵심 저서라 할 「사회분업론」, 「사회학방법론」, 「자살론」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3;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1895; *Le Suicide*, 1897)을 출간했다. 필자는 2019년 가을 학기 이 대학의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7월 3일 오전 아시아문명학부를 방문하여 오랜만에 한국학과의 교수들과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위의 [사진 4] 참조).

학술교류

2026 필라델피아 세계수학자대회
: 수상자, 중국 수학의 약진 및 ICM 이후 AI의 놀라운 발전

金道漢 會員 (수학)



8년 만에 다시 열린 대면 ICM

2026년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ICM)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수학연맹(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 IMU)이 4년마다 주관하는 ICM은 세계 수학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특히 개회식에서 필즈상과 여러 IMU 상의 수상자가 발표되므로, ICM은 세계 수학자들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만하다.

직전 대회인 2022년 ICM은 원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최 계획이 변경되었다. 본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IMU 총회와 시상식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따라서 2026년 대회는 2018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에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인 대면 ICM이었다.

공식 개막 하루 전인 7월 22일부터 많은 수학자가 학회장을 찾았다. 이날 저녁에는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환영 리셉션이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공영시장인 리딩 터미널 마켓(Reading Terminal Market)에서 열렸다. 이 시장 안에는 엄청난 수의 식당이 있어 참석자들이 먹고 싶은 저녁 식사와 음료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 이튿날인 개회식과 함께 필즈상과 여러 IMU 상 수상자들이 공개되어 행사장이 특히 붐볐다. 필즈상 수상자 발표 전에는 브라스가 주축인 밴드 West Philadelphia Orchestra가 거대한 식장을 행진하며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1998년 베를린 ICM 개막식 때 Hindemith의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후자가 독일 실내악의 절제되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면, 전자는 자유롭고 활기찬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한편 이번 미국 개최를 둘러싸고 비자 발급과 입국 안전, 미국의 과학·학술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프랑스수학회(SMF)와 프랑스응용·산업수학회(SMAI)는 공식 대표단이나 부스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여러 학술단체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 전시장에서도 유럽 수학회들의 부스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다만 이는 유럽 수학계 전체의 공식 보이콧이라기 보다는 일부 학회의 불참 결정과 개인 참가 감소가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중국 수학의 약진과 2026년 필즈상

이번 ICM을 관통한 화두로는 중국 수학의 약진, 수학과 인공지능(AI), 그리고 Kakeya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네 명의 필즈상 수상자 가운데 유 덩(Yu Deng)과 홍 왕(Hong Wang)은 모두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이어 온 수학자들이다. 두 사람은 필즈상을 받은 최초의 중국 국적 수학자로 기록되었다. 1982년에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성장한 싱퉁 야우(Shing-Tung Yau)가 필즈상을 받

은 바 있으나, 이번 수상은 중국 국적자 두 명이 동시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여성 수학자 홍 왕은 조슈아 잘(Joshua Zahl)과 함께 3차원 Kakeya 집합 추측을 해결한 공동 연구로 수상 전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는 유명한 중국 관광지의 하나이지만 상당히 벽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구이린(계림)에서 태어나 베이징대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지구·우주과학을 공부했으나 이듬해 수학과로 전과했다. 이후 프랑스 École Polytechnique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Université Paris-Saclay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MIT에서 래리 거스(Larry Guth)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석사 1년차에 자기 자신의 수학 재능에 회의를 느껴 전공을 건축학으로 바꿀 생각도 가졌다고 한다. 필즈상 수상자에게도 진로에 대한 흔들림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자로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Kakeya 문제는 1917년 일본 수학자 가케야 소이치(掛谷宗一)가 제기한 '길이가 1인 바늘을 평면에서 한 바퀴 돌리기 위해 필요한 영역의 최소 넓이'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에는 모든 방향의 단위 선분을 포함하는 집합이 얼마나 작을 수 있는지를 묻는 가케야 집합 문제로 발전하였다. 평면에서는 넓이가 0인 가케야 집합도 존재하지만, 가케야 추측은 n차원에서 그러한 집합의 Hausdorff 차원이 반드시 n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왕과 잘이 해결한 것은 이 추측의 3차원 경우이다. 이 문제는 조화해석, 편미분방정식, 기하측도론과 깊이 연결되어 한 세기 넘게 현대 해석학의 핵심 난제로 남아 있었다.

참가 규모와 주요 수상자

이번 ICM의 등록 참가자는 약 2,8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필자가 접한 현장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참가자는 인도 약 200명, 중국 195명, 한국 약 80명, 일본 약 35명이었다. 반면 수학의 전통적인 중심지인 유럽 각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비자 및 학술 정책에 대한 우려로 참가 규모가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개회식에서 발표된 주요 수상자와 공식 선정 사유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상자	주요 업적
필즈상	Yu Deng	희박한 기체의 강구(hard-sphere) 동역학에서 볼츠만 방정식을 엄밀히 유도하고, 비선형 분산계에서 파동운동론 방정식을 유도했으며, 비선형 슈뢰딩거 동역학에 확률론적 방법을 도입하는 등 편미분방정식과 수리물리학에 기여했다.
필즈상	Hong Wang	다중척도 및 decoupling 기법을 평면 파동방정식의 local smoothing 추측에 적용하고, Fourier restriction, Falconer 거리집합, 평면의 Furstenberg 집합 및 3차원 Kakeya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필즈상	John Pardon	가상 기본류, 특정 다양체의 Fukaya 범주 및 유사정칙 곡선 계수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3차원 다양체의 군 작용과 매듭이론 등 기하학과 위상수학의 여러 분야에 기여했다.
필즈상	Jacob Tsimerman	o-minimality를 산술기하학과 복소대수기하학의 근본적 방법으로 재정립하고, 주기 사상의 상이 대수적이라는 Griffiths 추측과 Siegel 모듈러 다양체에 대한 André–Oort 추측 등 중심적 난제들의 증명에 기여했다.
IMU Abacus Medal	Shayan O. Gharan	이론컴퓨터과학과 조합적 최적화를 비롯한 수학적 정보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분	수상자	주요 업적
Carl Friedrich Gauss Prize	Yurii Nesterov	현대 수치최적화의 이론적 기초와 알고리즘적 토대를 마련하여, 기존에는 계산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여러 수치·데이터 기반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 수 있게 했다.
Chern Medal Award	Graeme Segal	위상수학, 기하학 및 수리물리학을 아우르는 깊고 폭넓은 업적으로 현대 수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Leelavati Prize	Hannah Fry	저술, 방송과 강연을 통해 수학을 폭넓은 대중에게 명료하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ICM Emmy Noether Lecture	Karen Vogtmann	기하군론, 특히 자유군의 자기동형군과 Outer space 연구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수학과 AI: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연구 문화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프로그램은 21세기의 대표적 수학자 테런스 타오(Terence Tao)를 비롯한 연사들이 참여한 '수학과 AI(Mathematics and AI)' 관련 특별 강연과 토론이었다. 많은 참가자는 AI가 앞으로 수학 연구를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정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논의의 중심은 AI 기술 자체보다 AI 시대에 수학 연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연구 문화에 놓여 있었다.

강연과 토론에서는 IMU가 지지한 'Leiden Decla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thematics'가 소개되었다. 이 선언은 AI가 수학 연구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학의 핵심 가치인 정확성, 투명성, 검증 가능성, 책임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AI가 생성한 결과 역시 기존 수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검증과 동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연구 성과의 출처와 기여 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받은 인상은 이 프로그램이 AI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자리라기보다, AI 시대에도 수학 공동체가 어떠한 연구 윤리와 소통 문화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AI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도구로 활용하되, 수학적 이해와 판단에 대한 인간 연구자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미국수학회 회장 라비 바킬(Ravi Vakil)을 비롯한 여러 수학자가 참여한 AI 패널 토론도 열렸다.



[사진 1] 미국수학회 리셉션에서 Vakil 회장과 대한수학회장단과 함께

필즈상 수상자 야코프 치머만은 수상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AI의 급속한 발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OpenAI에서 AI 안전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필즈상 강연 말미에도 AI가 수년 안에 문제를 풀고, 추측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의를 만드는 등 지금까지 수학자가 해 온 일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 수학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며,

AI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학과 수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희망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수학자 공동체가 AI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요컨대 이번 ICM에서는 AI의 기술적 발전 자체 못지않게, AI와 수학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함께 연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세계 수학의 최전선을 보여준 강연들

기조강연(plenary lecture)은 ICM의 오랜 전통으로, 대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를 낸 수학자들이 초청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하 Langlands 프로그램의 증명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게이츠고리(Dennis Gaitsgory), prismatic cohomology와 고차 범주론의 발전을 이끈 루리(Jacob Lurie), 뿌앙카레 예측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Hamilton's Ricci Flow와 그 후속 연구에 관한 발표를 한 S. Brendle 교수들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기조강연이 폭넓은 청중을 위한 개론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 강의실에서 45분씩 진행되는 분야별 초청강연과 20분 길이의 short communication은 각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다.

또한 Peter Sarnak은 1954년도 필즈상 수상자이며 Grothendieck과 함께 현대 수학의 주요 분야를 정립하고 현재 생존 중인 Jean-Pierre Serre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Maestro Jean-Pierre Serre"라는 제목의 특별 전체강연을 하였다. 그는 대수적 위상수학, 대수기하학, 군론과 수론을 넘나들며 현대수학의 여러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Serre의 업적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기서 'Maestro'라는 제목은 Serre를 단순히 뛰어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수학 분야를 자유롭게 이끌고 연결한 거장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학자들의 발표

국내외 한국 수학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예일대학교 오희 교수는 균질공간(homogeneous space) 위의 흐름과 궤도 분포를 연구하는 세계적 수학자로, 한국인 여성 수학자로서는 처음으로 ICM 기조강연을 맡았다. 미국수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동역학, Lie 군과 정수론이 만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업적을 쌓아 왔다.



[사진 2] 오희 교수 강연 후 대한수학회장단과 함께

분야별 초청강연에서는 편미분방정식 분야의 오성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교수가 발표했다. 조합론 분야에서는 교사로 재직한 뒤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Kahn-Kalai 추측을 해결하여 한국 언론 지상에도 여러 번 소개된 뉴욕대학교 박진영 교수가 강연했다. 이 밖에 여러 국내외 한국인 수학자가 short communication과 poster 세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Stabilization of Unstable Periodic Orbits

via Delayed Feedback Control'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대중강연: 카주라호 마방진에서 고차원 초입방체까지

대중강연에서는 2014 서울 ICM 필즈상 수상자인 만줄 바르가바(Manjul Bhargava)가 인도 카주라호의 파르슈바나타 자이나교 사원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4×4 마방진을 소개했다.

7	12	1	14
2	13	8	11
16	3	10	5
9	6	15	4

카주라호의 4×4 마방진. 각 행·열·주대각선의 합은 34이며, 노란색 2×2 블록의 합도 34이다.

이 배열에서는 각 행과 각 열, 두 주대각선의 합이 모두 34이다. 그뿐 아니라 서로 이웃한 2×2 정사각형의 네 수를 더해도 34가 된다. 예를 들어 왼쪽 위의 2×2 블록에서는 7+12+2+13=34이고, 가운데 블록에서는 13+8+3+10=34이다. 또한 배열의 위아래와 좌우가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나타나는 꺾인 대각선(broken diagonal)의 합도 34가 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마방진은 보통의 마방진보다 훨씬 강한 조건을 만족하는 most-perfect pandiagonal magic square라 불린다.

바르가바는 이 마방진이 특정한 대칭 변환을 제외하면 그 종류에서 유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며, 이는 H. S. M. 콕서터가 1938년에 제기한 질문에 답한다. 나아가 이 마방진의 대칭을 4차원 초입방체와 연결하고, 모든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마방진·마방체 또는 고차원 마방진 구조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일반화를 소개했다. 따라서 강연의 핵심은 단순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n×n 마방진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특정한 강한 성질과 대칭을 갖는 마방진 구조가 각 차원에서 유일하다는 데 있었다. 수학은 이 마방진에서와 같이 간단한 현상에서도 끝까지 가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리셉션

ICM 기간 중에는 주최국과 많은 나라에서 리셉션을 주최한다. 올해에는 유럽 국가의 소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적었으나 미국수학회, 일본수학회, 그리고 Simons 재단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여 각국 수학자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한국 수학자들을 많이 만났다. 사이먼스 재단 설립자 Jim Simons(1938~2024)는 미분기하학 분야에서 수학적 연구로 명성을 얻은 뒤, Renaissance Technology (Medallion Fund)을 설립하고 그 연구 역량을 금융시장에 적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특히, 그가 이룬 부의 상당 부분을 수학과 기초과학 연구 지원에 사용하였고 이번 ICM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다.



[사진 3] 왼쪽 5번째가 나카지마 현 국제수학연맹 회장, 1, 2, 4번째가 일본 현 및 전직 수학회장

일본수학회는 2030년 세계수학자대회(ICM)를 도



쿄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유치에 실패하였다. 당시 국제수학연맹(IMU) 회장이 도쿄대학교 교수인 나카지마 교수였던 데다, 일본 측은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여 리셉션에 일본 대사까지 초청하였다. 그러나 IMU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경쟁에서 도쿄는 최종적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차기 ICM 개최지는 영국의 글래스고로 결정되었다.

일본수학회 리셉션에서는 많은 동남아 수학자를 초청하여 예전에 2014 서울 ICM을 유치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아시아 수학연맹 설립 추진에 같이 협력을 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수학회 임원들과도 만나 반가웠다.

참가기에 보탤 얘기도 더 있지만 대회 끝난 후 한 두 달 만에 수학 분야에 AI의 난제 해결로 인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짧게 쓰려고 한다.

참가 후기: 2026 ICM 이후 수학 분야에서의 AI의 놀라운 발전

2026년 필라델피아 ICM에서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주제 중 하나는 수학과 인공지능(AI)의 관계였다. 당시 대회 직전에 기하학의 오랜 미해결 문제였던 야코비(Jacobi) 예측의 반례가 수학자 알퍼게에 의하여 AI의 도움으로 발견되면서, AI가 수학 연구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논의의 중심은 AI 기술 자체보다 AI 시대에 수학 연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연구 문화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발표된 AI의 수학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먼저 수학계를 크게 놀라게 한 사례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은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편미분방정식으로, 3차원에서 해의 존재성과 매끄러움을 밝히는 문제는 밀레니엄 난제 가운데 하나다. OpenAI는 2026년 9월 자사의 내부 AI 시스템이 수학자 저자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관련 논문과 Lean 형식의 증명을 공개했다. 다만 이러한 발표만으로 난제가 수학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시된 논증이 문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숨은 가정이나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엄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례는 AI의 놀라운 가능성뿐 아니라 수학적 결과를 검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 준다.

이어 2026년 10월 6일, OpenAI는 자사의 최첨단 AI 모델이 만들어 낸 370여 개의 새로운 수학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중에는 왕홍의 필즈상 업적인 카케야 문제와 관련된 4차원 Hausdorff 문제를 비롯하여 기하학과 해석학의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성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수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인 리만 가설 자체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중요한 준 리만 가설에 대해서도 중요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AI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수학적 문제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러한 발전은 AI가 기존의 수학 문제를 푸는 보조 도구를 넘어, 새로운 추측과 증명을 제안하고 수학 연구의 탐색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특히 수학은 논리적 증명을 통해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추론 능력을 시험하고 활용하기에 중요한 분야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26년 ICM에서 논의된 문제와도 직접 연결된다. 당시 수학과 AI에 관한 토론에서는 AI를 강력한 연구 도구로 활용하되, 수학의 정확성·투

명성·검증 가능성과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회 이후 이어진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원칙이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수학 연구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6년 ICM에 참가하면서 필자는 AI 시대에 수학 연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 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놀라운 발전은 그 질문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임을 일깨워 준다. 앞으로 수학자는 AI의 성능을 단순히 인간과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이끌어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AI가 수학 연구에 가져올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수학계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2016년 3월 9일 알파고의 등장으로 바둑계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수학계 역시 AI가 가져올 변화의 방향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앞으로 수학 연구와 수학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AI의 발전이 수학의 연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학술원상 수상자 기고

『김규식과 그의 시대』에 이르는 길



鄭秉峻* 教授 (이화여자대학교)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권(돌베개, 2025)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우사 김규식(1881~1950)의 생애를 다룬 것이다. 이 책은 김규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전이자, 김규식이 몸담았던 중국·미국·프랑스·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 및 관련 인물들을 추적한 것이다. 김규식을 따라가다 보니 김규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을 당면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담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 책은 김규식 평전이자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의 출발은 해방 직후 김규식·여운형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사과정에서 운좋게 주한미군정사령부의 비밀문서들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원문서가 주는 날것 그대로의 충격은 엄청났다. 이후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소장된 한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읽게 되었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연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우남이승만연구』, 『한국전쟁』, 『독도 1947』,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등이 미국측 비밀문서에 기초한 것이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박사가 주한미군정 군사실 문서철,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철 등을 발굴해 한국에 알린 덕분에 미국측 비밀문서들을 따라 읽을 수 있었던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해방 직후 김규식은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의 한 사람이자, 미군정 입법의원 의장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점했다. 여운형과는 좌우합작운동을, 김구와는 남북협상을 함께 했으나 한국전쟁기 납북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그는 천부적 어학능력을 지닌 학자형 정치인, 미국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이성적 한국인, 이상주의적 중도노선의 대표자로 언급되었지만, 강력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식에게는 당대 보통의 한국 정치인들과는 다른 비범한 면모가 있다고 느꼈고, 그 배경에는 그의 성장과 교육, 중국에서 보낸 독립운동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 짐작했다. 2000년대 초반 김규식의 비서를 지낸 송남헌선생을 인터뷰했는데, 김규식에 대한 애정과 회한이 짙게 배어있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 고아 소년 "존"의 근대로의 여정 (1881~1918)

김규식 평전의 본격적인 출발은 부친 김용원(김지성)과 김규식의 가계를 정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김규식은 언더우드선교사의 양자, 유창한 영어 구사, 도미유학생 출신의 엘리트, 기독교 청년지도자 등 근대적 친미지식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의 가계는

*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학부문 수상자

고종 및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김용원은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수신사행에 동반하고, 수군우후(水軍虞候)로 동래 왜관을 감시했으며, 조사시찰단 단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근대 과학을 배웠고, 고종의 밀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너가 제1차 조러밀약의 주역을 담당했다. 국제적 파문이 커지자 김용원은 유배에 처해졌고, 어린 김규식은 언더우드고아원에 맡겨졌다. 김규식이 맞게 된 서양식 근대의 출발은 부친의 충군애국의 길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후 김규식은 의친왕(의화군)의 통역 겸 시종으로 도미유학길에 올랐고, 주미공사관의 서기생으로 임명되고, 1905년 포츠머드조약을 대비해 국왕의 밀사로 상해에 파견되었다. 김규식을 대표하는 외교독립노선의 뿌리에 고종의 국권수호외교가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종과 김용원에서 김규식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끊이지 않는 사슬과 같은 관계, 전통적 근왕주의에서 근대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제1권의 부제는 「고아 소년 "존"의 근대로의 여정 (1881~1918)」이 되었다. 제1권은 김규식 개인의 삶을 복원하고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첫 번째 부인 조은애의 출자와 가계도는 이 책 이전에는 밝혀진 바 없을 정도이다. 제1권에서는 김규식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근대적 지식인으로 성장했고, 중국 망명 이후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발견한 김규식의 유년기 사진에서 출발해서, 김규식의 부친 김용원의 생애와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김규식의 생활, 의화군과 연관된 도미유학의 과정, 로녹대학(Roanoke College)의 학창 생활, 귀국 후 사회활동과 결혼, 중국 망명 직후 동제사, 중국혁명 참가, 중국과 몽골에서의 활동과 대동단결선언 참가 등을 다루었다. 스미소니언박물관 아카이브에서 호랑이가죽 의자에 앉은 김규식의 사진을, 로녹대학에서 김규식의 학창시절 기록과 사진을,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호주에 인삼 팔러 간다며 발급받은 여권을 찾았고 「불령단관계 잡건(不逞團關係雜件)」 문서철에서 중국 내 행적을 찾았다. 그러나 기록은 파편적이었고, 연보의 매년을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컸다.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생존과 영어를 배운 소년 김규식이 미국 유학 후 10년간의 국내 사회활동을 마치고, 중국으로 망명해 한국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은 한국이 당면한 근대와 식민지의 비극적 상황, 그에 맞선 독립운동, 독립운동가의 입지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규식은 일제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으로부터, 신분제의 제약과 언더우드라는 생명의 은인이자 존재론적 규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중국혁명과 한국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2: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 (1919~1921)

제2권은 김규식의 생애 중 가장 빛났던 파리강화회의, 3·1운동, 구미위원부 활동을 다루었다. 3년에 불과한 시기를 한 책으로 엮은 것은 그만큼 김규식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행과 관련한 중요 챕터들은 그를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여운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운형이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친구인 찰스 크레인(Charles Crane)에게 신한청년당 명의로 한국 독립을 후원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실물 편지의 존재나 경과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17년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찰스 크레인가족 문서철에서 여운형이 1918년 11월 크레인에게 쓴 편지와 이에 동봉된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100년 만에 발견했다.

감격과 흥분으로 글을 썼고, 이것이 제2권의 첫 번째 장이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단의 외교문서철과 의회도서관의 우드로 윌슨 문서철, 윌슨 참모들의 개인기록들을 통해 김규식이 영어에 능통해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 김규식이 중국 출발에 앞서 북경 주재 미국공사관에 자신이 파리에 가서 공보국을 설립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일본 통치의 가혹성·부당함을 선전할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 여운형과 김규식 사이에는 친밀감보다는 이물감이 상당했는데, 김규식은 여운형의 청원서를 품고 다녔지만, 그 문서에 여운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규식은 신규식과 함께 파리강화회의 행을 논의했고, 미주의 안창호·박용만에게 편지를 보내 해외한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신규식과 공동명의로 파리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 평생의 동지로 알려진 두 사람 사이에 복류(伏流)하고 있던 이물감은 여운형·신한청년당이라는 새로운 신흥청년세력과 김규식·신규식·동제사라는 기성의 독립운동세력 간의 간극이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독립운동의 대폭발 속에 양자의 차이나 간극은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3·1운동 전후 김규식-여운형-신한청년당-동제사-파리강화회의가 맞물린 복잡한 내막은 이 책에서 처음 그 전모가 규명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3·1운동이 폭발하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라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온다는 점을 절감했고, 전력을 기울여 시대의 부름에 호응했다. 무명의 청년에 다름없던 두 사람은 국내외가 호응한 3·1운동이 대폭발하자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역사는 시대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명성과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제2권의 부제는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1919~1921)」인데 여운형-크레인 면담의 결과 신한청년당이 결성되고 국외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 파견을 시도하고, 이런 소식들이 동경유학생들과 국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과정, 파리강화회의로 가기 전, 가는 도중 김규식의 활동, 국내외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밀사들의 활약,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의 1인 활동,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서의 고경(苦境), 상해로의 험난한 귀경길 등을 다루었다.

제2권에 활용한 자료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파리로 향하던 김규식은 배 위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청원서 초안을 써 부인 김순애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실론 주재 영국 우편국의 검열망에 걸렸다. 편지 원본을 찾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를 찾았고, 여기서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 영국대표단에게 보낸 다양한 비망록과 편지들을 발견했다. 미국과 영국의 자료들을 종합하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다양한 청원서, 비망록, 편지들, 대표단과의 접촉 경과가 밝혀졌다. 가장 놀랐던 일은 모든 문서 작업, 외교적 접촉 시도, 언론 홍보 및 선전활동을 김규식 혼자서 처리했다는 점이었다. 이관용, 여운홍, 조소앙 등 조력자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김규식은 3·1운동기 한국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파리강화회의의 유일한 한국 대표였고, 신한청년당 대표에서 출발해 대한인국민회,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대표로 호명되었다. 김규식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로서 행복하고 자긍심이 넘치는 일이었지만, 마땅히 연구되고 정리되었어야 할 중요 주제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였다는 점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미 의회도서관 태스커 블리스(Tasker Bliss) 문서철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김규식의 조그만 명함을 어루만지며 그가 느꼈던 외로운

외교대표로서의 무게와 압박감에 격동과 비애의 감정이 교차했다.

김규식은 미국으로 건너가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았지만,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했던 결과 뇌종양 수술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1920년 김규식이 구미위원부 위원장이자 파리강화회의 한국 대표라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혹은 워싱턴 월터 리드병원의 첨단 의료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연맹 외교를 기대했던 김규식을 기다리던 것은 구미위원부 공채표 판매 세일즈맨 역할이었고, 결국 김규식은 상해로 귀환을 결정했다.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는 배편을 물색하던 김규식과 이승만은 박용만이 미군 수송선 토머스호를 타고 시베리아로 건너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승만은 수송선 탑승이 가능한지 미군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고,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숨겨 밀항했다. 이 배에는 중국 고향 땅에 묻히길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관이 실려있었는데, 이승만은 사전공작을 통해 여기에 편승한 것이었다. 덕분에 이승만은 관에 숨어서 상해로 향했다는 전설적 신화를 얻게 되었다. 반면 김규식은 곧바로 토머스호에 밀항을 시도했다가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 전에 발각되어 하선당했다. 이때 김규식이 소지하고 있던 중요 문서들이 미 정보당국에 압수되어 촬영되었다. 박용만, 이승만, 김규식의 처신과 상황판단, 임기응변 등이 잘 드러났다. 고지식한 김규식의 면모 덕분에 우리는 압수된 중요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김규식은 호주를 경유해 상해로 돌아갔는데, 파리에서 만났던 호주 수상 휴즈(William Hughes)와 재회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에서는 해당 문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1919년 2월 상해를 출발한 김규식은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쳐 파리로 갔고, 다시 대서양을 횡단해 미국으로 향한 후 미 전역을 2차례 순방했고, 뇌수술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거쳐, 하와이에서 호주를 거쳐 1921년 1월 다시 상해로 귀환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3: 열정과 냉정 사이, 중국에서의 독립운동(1922~1945)

제2권의 주요 내용들을 완성한 후 23년간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기를 다뤄야 했다. 앞서의 서술 밀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중국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다행히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뛰어난 선행연구들이 존재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간행위원회에 말석으로 참여한 덕분에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개괄적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제3권의 부제는 「열정과 냉정 사이, 중국에서의 독립운동(1922~1945)」인데,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1921~1922), 국민대표회의(1923), 교육자(1923~1932), 도미외교(1933), 임시정부·민족혁명당 참여와 탈퇴, 사천대학 교수 시절(1933~1942), 중경 임시정부 활동(1943~1945), 해방과 귀국 등을 다루었다.

선행연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국민대표회의였는데, 구소련 몰락 이후 공개된 코민테른 비밀자료들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그 이전의 연구가 대회 참가자들의 회고, 일본 외무성·경찰의 정보보고 등에 의지했다면 모스크바의 자료들은 러시아와 한국인 주체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김규식은 1919~1920년 친미·기독교·서구 지향의 대표주자였는데, 1921~1923년 극동민족대회, 국민대표회의 등 러시아와 관련된 외교활동에 적극 참가했다. 그와 함께 외교독립노선을 주도했던 여운형, 현순, 최창식 등도 모스크바로 급선회했다. 파리강화회의에서의 낙담

과 식민지 민족해방을 돕겠다는 모스크바의 선언과 자금지원이 상호작용을 벌인 결과였다. 상해는 1919년 독립의 에너지로 가득찼다면, 1921년 혁명의 중심지로 급변했다.

러시아 문서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극동민족대회 이후 레닌 자금을 둘러싼 한국 독립운동진영의 각축전이 드러났다. 이동휘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 김규식을 대표로 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이희경·안공근이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3각 충돌이 벌어졌고, 러시아 자금은 한국의 혁명운동과 반일운동을 고무하기보다는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천이 되었다. 고비사막을 횡단하고 기차, 자동차, 쌍두마차, 썰매를 활용해 울란바타르를 거쳐 이르쿠츠크에 이르는 여정은 김규식이 중국 망명 이후 외국회사 상사원으로 주재하며 닦아놓았던 인맥과 통로를 활용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는 파리강화회의·워싱턴군축회의를 통한 외교 시도가 실패하자, 상해에서 외교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형태로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외교독립노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결과 소집되었다. 임시정부의 방향을 둘러싸고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자는 창조파, 임시정부를 유지하지만 지도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 그대로 유지하자는 유지파가 격돌했다. 한국의 반일적 역량을 총집결해 통일적 혁명정당을 창출하려는 레닌 자금이 이 회의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미 3파로 분열된 상태에서 건설적이고 통일적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김규식 등이 모두 임시정부를 떠났고, 회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때 창조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국민위원회라는 정부를 선포했는데, 김규식이 여기에 동참했다. 국민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김규식이 이런 소수의 정파적 움직임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백위파와 서구 열강의 반혁명 공세를 저지하고 러시아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한다는 레닌의 대의는 그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위원회는 즉각 추방되었고, 그 활동은 문건으로만 남았다. 김규식에게 1919~1920년은 파리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운동이었다면 1921~1923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외교 독립운동이었다.

파리, 워싱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이 종료되자 김규식은 교육자로 돌아갔다. 중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중국·미국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예비학습을 제공했다. 중국 시절 김규식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단호히 후퇴하곤 했는데, 도미유학생 출신으로 탁월한 어학능력을 가진 영어 교사라는 퇴로가 존재했다. 긴 중국 망명생활 동안 그의 활동과 가족·생계를 건사할 수 있게 해준 수단이자 그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 배경이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의 차별점이었다.

김규식은 1933년 미국을 다시 방문했다. 김규식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중한민중대동맹의 대표로 도미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재미 화교들을 조직화해 후원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규식은 재미 한인들이 기대했던 임시정부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대한독립당이라는 후원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그쳐야 했다. 김규식은 하와이에서 3·1운동기부터 알고 있던 이용직과 한길수를 만나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한길수는 이를 계기로 중한민중대동맹 미주 대표로 자임했고,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을 예언했다고 자부하며 태평양전쟁기 미국 언론의 총아가 되었다. 재미한인사회의 문제적 인물 한길수의 출세기가 여기로부터 비롯되었다.

1933~1935년간 김규식은 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

에 합류했다가 탈퇴했다. 1930년대 중국 국민당 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한국 독립운동진영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이 양립하게 되었다. 김규식은 민족유일당 운동을 계승한 민족혁명당에 참가했지만, 곧바로 사직했다. 이청천, 조소앙, 유동열 등도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다 탈퇴했는데, 이러한 통일과 분열의 반복은 사상·노선의 대립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와 인간적 관계의 충돌에 따른 것이었다. 김규식은 이후 사천대학 영문학 교수(1935~1942)를 지내며, 저술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으로 양분되어 분립과 통합을 거듭했다. 선행 연구들은 이 시기를 김구·한독당·임정 중심, 김원봉·민혁당·조선의용대 중심, 연안 독립동맹·조선의용군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책에서는 이들의 연합과 갈등,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세계정세와의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발원한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후원이 한국 독립운동과 카이로회담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었다.

1943년 임시정부로 복귀한 김규식은 부주석이자 민족혁명당 주석의 위상을 점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활동의 폭은 크지 않았다.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서두르는 시점에 그는 『양자유경』이라는 영시집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현실 정치에서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던 중경시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귀국한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주역으로 중도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좌파와도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제3권의 부록으로 김규식평전을 쓰며 자료를 발굴하게 된 사정을 기록한 「남은 말: 김규식 자료 추적기」를 덧붙였다. 선행 연구자들의 개척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따라 이 책에 이른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해방 후 김규식의 활동을 개관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의 개인 정치고문이었던 버치(Leonard Bertsch) 중위의 문서철에 등장하는 1946~1947년간 김규식의 면모를 스케치했다. 아직 1945~1950년간 김규식의 국내 활동은 미완이다.

연구의 초입에 있었던 1987년 미국·영국·일본에서의 문서관 연구는 꿈과 같은 일이었다. 이제 시대가 몇 차례 변하고 한국 사회는 성장을 거듭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문서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를 징검다리 삼아, 해외 문서관의 원문서를 탐구하며, 여기에 이르렀다. 되돌아 보면 좋은 운과 좋은 시대를 만난 덕분이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선후배들의 격려와 비판에 의지한 때문이었다. 바로 보고 힘써 나아갈 뿐이다.

학술원상 수상자 기고

공정이용의 역설



南馨斗* 教授 (연세대학교)

대표업적, 『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경인문화사, 2025)(이하 '역설')에 대해 소개한다.

1. 집필 계기 및 취지

당초 이 책의 구상은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마침 저작권법은 법학을 넘어 학문 전반, 나아가 인류의 미래와 연결되는 논의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라클(Oracle)이 구글(Google)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11년 만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을 요약하면,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오라클의 디클레어링 코드(declaring code)를 무려 11,500줄(line)이나 무단 복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부합하므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된 판례이론이 '변형적 이용 이론(Transformative use theory)'이다.

연방대법원은 법리(doctrinal) 대신 정책적 접근(policy based approach)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토마스 대법관(J. Thomas)이 이제 미국에서 저작권법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문에 썼겠는가? 같은 행위를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사건에서 인류에 큰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글을 위해 굽은 판결이 선고됐다는 비판은 미국에서도 나왔다. 예로부터 추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은 나그네와 고아를 위한 배려였다. 공정이용 제도는 바로 이런 정신에서 출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이 '작은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를 이용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2022년 ChatGPT의 출시는 인류 역사를 뒤바꿀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아울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저작물, 개인정보 등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쓴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콘텐츠를 'TDM (text and data mining)'의 대상으로 삼는 인공지능 개발사 등 빅테크의 비즈니스 계획(scheme)과 비교한다면, 특정 회사의 저작물 중 일부를 가져다 써서 문제가 된 '오라클 v. 구글' 사건은 그저 작은 사건이 되고 만다.

이제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인공지능 개발에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작권은 거대한 바람에 휩쓸리는 한갓 풀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담았다.

*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 수상자

2. 구성과 내용

가. 역사적 접근

(역설, II. 공정이용 법리의 발전)

저작권법 탄생 후 발생한 모순과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 법리와 제도가 어떤 이념과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초기의 취지와 달리 거대한 이용자로 인해 공정이용 제도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미국의 주요 사건 판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정이용 제도의 확대가 가져온 또는 가져올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분석 접근(case analytical approach)을 시도했다. 디지털 대량 복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으로 공정이용은 더는 저작권법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과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innovation technology)에 대응하는 법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공정이용 연구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나. 연역적 접근

(역설, III. 공정이용 이론과 TDM 면책 논의)

공정이용에서 '공익'을 내세워 빅테크의 공정이용 수혜의 폭을 넓혀놓은 '변형적 이용 이론'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이용 제도의 본질에 관한 기존 이론을 비판한 후에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공정이용 제도의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민법의 '주위지 통행권' 및 '상린관계'를 유추한 새로운 대안 이론을 펼쳐 보였다(역설, pp.177~182). 공정이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크게 플랫폼과 인공지능으로 말할 수 있는데, 플랫폼과 공정이용 그리고 TDM 면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형적 이용 이론'의 핵심적 가치인 '공익' 논의의 허구를 비판했다.

다. 귀납적 논증 및 대안 제시

(역설, IV. 공정이용 논의의 새로운 지평)

공정이용이 현재의 추세대로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를 위해 확대 적용될 경우, 그것이 가져올 플랫폼과 인공지능 측면에서의 폐해를 살펴봄으로써 '변형적 이용 이론'을 비판하고(귀납적·경험적 고찰), 빅테크의 공정이용 수혜, 인공지능 개발사의 TDM 예외 인정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표절 논의와 조세적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 한국의 공정이용 논의 비판

(역설, V. 한국의 공정이용 논의)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론을 한국의 공정이용 논의에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공정이용 판결의 특징을 나열하고 비판함으로써 저작권과 공정이용 실무와 학계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3.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저작권법 전반을 다루는 대신, 저작권법의 가장 큰 난제인 '공정이용'을 통해 인공지능이 초래한 현재와 초래할 미래 인류의 위험을 경계하고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저작권법 책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저자 특유의 창의성이 더해졌다.

가. 틈새 연결 —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저술 목적과 그 목적에 다다르는 논증 행로에 있는 여러 학문과의 대화가 불가피

했다. 법학 내에서 법철학, 헌법, 민법, 형법, 경쟁법, 개인정보 보호법, 노동법, 절차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등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법학을 넘어 표절금지윤리, 문학/번역, 철학, 신학, 미술사, 정치학, 경제학, 장애/사회복지, 미디어, 언어학, 컴퓨터과학(인공지능 포함), 생물학, 신경의학 등에 대화를 시도했다. 프롤로그의 사사(謝辭)에 거론된 학자들과 학문 분야는 실제 본문과 각주에 빼곡히 들어있다(역설, 프롤로그, xii).

'호기심'은 학자(學者)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술은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목표를 향한 노정에 생겨난 질문을 억누르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대화를 걸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논증을 다져가는 편을 택했다. 최근 저작권법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논쟁인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경망을 본뜬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신경의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추론했으며(역설, p.338, 주 726), 인공지능이 스크래이핑하면 타겟 웹/앱 페이지에서 인공지능을 무력화시키는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 기술이 형법의 정당방위 요건(현재성) 또는 적정성(과잉방위)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기도 했다(역설, pp.332~336).

전작 『표절론』(현암사, 2015)에 이어 이 책에서도 저자는 '모듈(module)'을 만드는 학자를 자임하였다. 저작권법(학)이라는 좁은 분야를 연구하지만, 그것을 허브로 하여 연결 지을 수 있는 모듈을 만들고 여러 학문 분야가 연결되기를 의도했다. 『표절론』이 '정직한 글쓰기' 또는 '연구윤리'라는 공통 쟁점의 모듈이었다면, 이 책은 인공지능을 연결고리로 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저마다 '바퀴를 새로 만들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특이점(singularity)을 넘어섰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질주를 감속시킬 수 있는 저작권과 공정이용 제도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저자와 같은 목소리(voice)가 그들 분야에 전달되기를 소망했다. 저자가 제시한 모듈은, 마치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띄운 우주왕복선이 연결(도킹)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여러 연결점(포트)을 갖춘 우주정거장처럼, 인공지능을 매개로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본다.

나. 이론 정립과 실천적 적용

저자는 15년간 변호사 실무 경험을 거친 후 대학교수로 전직하여 2026년 현재 22년째이다. 한국에서 실무 경력 대학교수는 박사학위가 있어도 사상적 깊이에 대해 늘 의문 부호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저자는 전직 후에 더욱 철학(사상) 공부에 매달렸고, 법학 외의 학문에 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대표 업적 저서 외에 단독저, 『표절론 —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720면)와 대표편저, 『문학과 법 — 여섯 개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등(공동저자: 김영란, 남형두, 윤혜준, 임헌영, 정명교, 정끝별)을 낸 계기가 됐고, 이것들은 그간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학은 여전히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란 점에서 구체성, 사례를 떠나서는 공론(空論)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다고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평석(評釋) 류의 글에는 뿌리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짧기 마련이다. 일반과 특수, 사상과 구체,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몇 편의 논문으로 담을 수 없는 체계서를 기획했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집필에 8년이 걸린 이유이다(역설, 프롤로그, viii~ix).

다. 법학적 상상력

상상력은 문학/예술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몽테스키외는 동방 여행기 몇 편에 의존하여 중국의 강력한 왕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기후와 토양을 들었다. 후에 그의 상상력은 귀납적으로 증명되었고, 『법의 정신』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법학은 법률이라는 텍스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법전과 판례 안에만 머무를 때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점진적(漸進的)이지 않고 단속적(斷續的) 발전이 일어나는, 이른바 '파괴적 혁신기술' 앞에 놓인 법학은 비상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사건에 관한 판례와 그것이 법제화(codification) 된 법률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법학이 제 역할을 하기는 난망이다.

법학의 '비상한' 방법론으로서 이 책은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메타포, 우화, 비유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사했다.

라. 유연한 사고 —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몰입 지양

이 책에서 언급한 공정이용에 관한 가장 최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Warhol v. Goldsmith, 2023년)은 "저작권법으로 쓴 미술사"라고 부를 만하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방대한 분량의 논쟁도 놀랍지만,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문학과 예술에 관한 거침없는 논의는 단순한 공정이용 판결을 넘어, "현대미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법(학)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판결을 길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법학계와 실무계에 가장 부족한 면을 질타하였다(역설, pp.112~125).

흔히 현실과 담을 쌓는 '선비형'을 학자의 전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에 들어오면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치를 모르는 헌법학자, 인간을 탐구하지 않는 형법학자, 전통/관습과 변화하는 현실을 놓쳐버린 민법학자, 경제를 모르는 경쟁법학자·조세법학자, 문학·예술 등 문화와 인공지능 등 저작물 이용 기술에 관심이 없는 저작권법학자라면 곤란하다. 법은 단지 텍스트(text)일 뿐, 그것이 깔고 있는 현실과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학(자)은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널리 알려진 '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 — 가수인 조영남의 지시에 따라 전업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린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 — 이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접근하는 저작권법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법과 현실(예술 사조)을 "옷과 몸"의 관계로 비유해,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옷을 입히는 격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역설, p.89, 주 217). 바로크 시대의 산물인 저작권법(1709년 영국의 Anne Statute)은 뒤샹 이후 현대미술에서 여전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는 규범이 되고 만다. 오늘날 미술가들에게 고흐처럼 그리라고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 법(옷)이 현실(몸)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을 상수항에 놓고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만사를 사법화(司法化, judicialization)하고 그 결과 법률가에 의한 통치(juristocracy)로 흐를 우려가 있다. 실제 이런 류의 글은 법학 논문집이나 관련 전문 잡지에 넘쳐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서울대학교 「法學」 제62권 제3호, 2021)이란 논문을 펴낸 적이 있고, 연장선에서 이 책에도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유연한 해석 시도의 흔적이 많이 들어있다.

마. 본질을 잃지 않는 비교법 연구 — 미국 외 국가에 속한 학자의 시선

판례에 대한 맹신은 저작권법 학계와 실무계도 예외

가 아니다. 1년에 100건이 채 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그것도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의 판례와 통계상 대법관 1인당 하루 평균 10건 이상 선고해야 하는 한국 대법원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한 나머지 판결을 금과옥조로 대우하는 한국 법학의 통념을 저자는 과감히 질타했다. 판결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낱낱이 해부함으로써, 최소한 저작권법에 관한 한 대법원판결을 미국 판례처럼 대우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역설, pp.550~553). 오히려 저작권법에서는 사안의 수집을 위해 다양한 하급심 판결들,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사건의 사안들에서 더 중요한 학문적 논의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역설, p.552, 주 1100).

여전히 일본 법학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저작권법 학계와 실무계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는 공정이용 제도조차 없는데,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뒤졌다는 자성하에 TDM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마치 "중고등학교를 건너뛰고 대학교에 진학한 것"에 비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저작권법 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들어 한국 저작권법 개정에 참고로 삼는가 하면, 나아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 입법 방향을 호도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맥락을 도외시한 섣부른 비교법 연구(comparative law research)가 가져온 재앙적 현실이다(역설, p.276).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오라클 판결(2021년)은 '작은 이용자(little users)'에게 적용되어야 할 공정이용을 '변형적 이용'을 내세워 '슈퍼 빅 유저(super big user)'인 구글에 적용함으로써, 빅테크가 저작물을 무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이 판결이 주는 함의를 치열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삼백 년간 지속되어 온 저작권과 공정이용이라는 균형을 휴지쪽처럼 버리고 따라나선 꼴이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저자는 이를 이 책의 부제,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이란 수사로 표현했다. 공익에 부합하므로 공정이용이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형적 이용 이론'은 구글을 수혜자로 하는 어이없는 결론을 냈지만, 미국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이란 '공동체'와 '이익'을 전제로 하는데, 전 세계에는 미국이 아닌 공동체로서 많은 국가가 있고, 이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어떻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것이 공익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미국 외의 국가와 사람들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법학, 저작권법 학계가 침묵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나아가, 공정이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시장적 경쟁관계이론"이란 것도 단면 시장만을 전제로 하면, 구글북스 사건에서 무료로 지식검색을 하게 하므로 경쟁관계가 없다는 구글의 주장이 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플랫폼이란 다면 시장을 전제로 하면, 이는 결코 무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사람(이용자)을 모이게 하고 다른 시장(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임에도 왜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policy based approach를 자유자재로 하는 미국의 법관과 학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국 외 국가에 있는 학자들이 이를 보지 않는 것은 맹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역설, pp.202~218).

미국 외 국가에 있는 학자가, 미국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

플랫폼 환경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공정이용/TDM 예외 쟁점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훌쩍 넘어, 법

학 전반과 나아가 경제학(효율과 정의에 관한 논의), 사회학(예술과 창의성에 관한 예술사회학 논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주권의 일부인 재판관할권 논의), 철학과 신학(인간과 인공지능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편, 이들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그 논의의 출발선에 인공지능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논의를 피할 수 없다. 공정이용과 TDM 논의는 저작권법 영역 안에 가둘 수 없는 논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용과 TDM 논의를 저작권법 내로 한정하거나, 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저작권(공정이용)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는 법학의 전공 분야별 및 위 학문 분야별로 각기 따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공정이용 또는 TDM 예외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빅테크, 인공지능 개발사로서는 지극히 환영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화살 하나씩은 얼마든지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가 깔고 있는 여러 법률문제를 개별 분야별로 대응하면, 상대방인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로서는 이 문제를 매우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 분야, 나아가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대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처한다면,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Whack-a-mole game)'에서 거의 동시에 튀어 오르는 두더지를 한 사람이 상대하다가는 백전백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역설, p.132).

빅테크로서는 끊임없이 법적 쟁점을 분절화/파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화로 포장된 학문의 분과학성(分科學性)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는 '화살 부러뜨리기'[위 절전(折箭) 고사]와 '두더지 잡기 게임' 비유를 통해 빅테크의 공정이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 방법론을 시도했다.

사. 치열한 주제 의식

인류의 역사는 집중과 해체, 달리 말하면 중심화와 탈중심화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탈중심화(decentralization)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가권력보다 더 강력한 몇몇 빅테크 기업의 통제력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학자 제임스 보일(James Boyle)은 18~19세기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에서 착안하여 저작권을 제2의 인클로저라고 주창하였는데, 저자는 저작권을 공정이용으로 해체하여 빅테크가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현상을 이론으로 정립했다. 제1, 제2 인클로저 때와 다른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이키기 어려운(irreversible), 해체와 재전유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정이용에서 변형적 이용 이론의 빅테크 수혜와 TDM 예외 제도의 도입에 신중히 해야 함을 주장했다(역설, p.313, <표 4>).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과 빅테크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공정이용 이론의 엄격한 적용으로써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든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자도 그럴 경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조세적 해법을 제시하였다(역설, p.444).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은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로 AI의 설계자들 9인을 선정하면서, 2025년은 AI의 완전한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해라고 발표했다. 저자의 우려와 진단이 들어맞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믿음이 있다. 언젠가 되돌아보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복기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때 이 책이 이 시대의 증언으로 남겨졌으면 한다. 에필로그 말미에 그려진 사마귀 그림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되어도 좋다는 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역설, 에필로그, p.612 그림).

학술원상 수상자 기고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업적 소개-

權熒基* 教授 (서울대학교)



1. 연구의 문제의식: 한국 발전국가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Oxford University Press, 2021)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한국이 세계화·자유화·민주화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가조정모델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 연구이다. 이 책의 출발점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공을 자유시장 또는 강력하고 응집된 국가라는 하나의 고정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은 빈곤한 농업국가에서 고도 산업국가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금융·무역 자유화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도 산업구조를 지식·기술 집약적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신고전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무역 개방, 비교우위, 시장경쟁과 국가개입의 축소를 성장의 핵심으로 보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수렴했다고 해석하였다. 반대로 발전국가론은 유능하고 응집된 관료제, 금융 통제,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 같은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한국 성장의 핵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세계화 이후에도 국가가 산업발전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후자는 한국 발전국가가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도 왜 계속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책은 한국 발전국가의 핵심을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적 적응 능력'에서 찾는다. 한국의 국가조정모델은 과거 제도를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정책수단과 발전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이를 '변화를 통한 지속(continuity by changes)'이라고 개념화하고, 그러한 변화의 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변화(changes by competition)'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기여: '변화를 통한 지속'과 '경쟁을 통한 변화'

이 책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여는 발전국가를 단일하고 응집된 행위자로 보는 기존 전제를 수정한 데 있다. 전통적인 발전국가론은 국가 내부의 높은 응집성과 일관된 합리성을 성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경제 부처 간 갈등과 관료조직의 분화는 국가 역량의 약화나 발전국가의 쇠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책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경제기획원, 재무

*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 수상자

부, 상공부, 이후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내부에 서로 다른 문제 인식과 정책대안을 가진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경쟁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는 하나의 합리성을 가진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엘리트가 권위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장(locus of competition)이다. 경제위기나 국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의미와 가능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정책 엘리트들은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해 상이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적 실험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

이 책은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이 반드시 국가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쟁이 공통의 발전 목표 아래 조정되고 상호 학습과 숙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오히려 정책 혁신과 제도적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다. 한국의 경제 부처들은 국가 산업경쟁력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경쟁했고, 대통령의 조정, 부처 간 협의, 정책실험과 성과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 조합을 만들어냈다.

이 관점에서 제도적 지속과 변화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아니다. 1970년대의 시장진입 통제, 가격 규제, 금융 배분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책수단을 세계화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면 발전주의는 오히려 경쟁력을 잃었을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수단을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R&D 지원, 조세 인센티브, 정책금융, 연구개발 컨소시엄, 산업생태계 구축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발전시켰다. 발전주의의 목표는 유지되었지만 이를 실현하는 전략과 수단은 변화했다.

3.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다양성과 산업공유재

이 책은 한국의 경험을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다양성이라는 비교정치경제의 문제와 연결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한국은 어떻게 국가조정모델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는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은 자본 이동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가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제도적 차이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이 가치사슬을 국경 밖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는 국내 산업역량을 유지·고도화한 반면, 다른 국가는 제조업 기반과 혁신역량의 약화를 경험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산업공유재(industrial commons)'에 주목한다.

산업공유재란 개별 기업이 혼자 만들어내기 어려운 산업생태계의 공동 역량이다. 숙련된 기술인력, 부품·소재 공급업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시험·인증 시설, 장기금융, 기업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혁신은 개별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보완적 역량이 축적된 산업생태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핵심 문제는 기업의 해외진출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 확대 속에서 국내 산업공유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이다.

책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조정 방식이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자유시장 모델에서는 기업의 개별적 이익 추구가 중심이 되고, 독일과 같은 사회적 코포라티즘에서는 기업·노동조직·지역기관 등 사회적 행위자의 협상과 공동조정이 중요하다. 반면 한국은 국가가 전략산업과 산업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행위자를 연결하는 국가주의적 조정모델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 R&D,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세계화가 모든 국가를 하나의 자유시장 모델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정방식을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재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한국 발전국가의 역사적 진화

책의 경험적 분석은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추적한다. 1960년대의 고전적 발전국가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에도 국가주도 산업화 아이디어는 존재했지만 이를 실행할 조직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 초기 군부 "혁명" 세력이 추진한 내포적·균형적 공업화와 화폐개혁이 실패한 뒤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경제관료에게 이동하면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핵심 조직으로 부상했다.

수출지향 산업화 역시 미리 완성된 청사진의 실행이라기보다 정책실험과 경쟁의 결과였다. 상공부는 처음에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선호했지만 외환 부족 속에서 제조업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수출촉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외자 도입, 산업정책, 수출촉진의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했고, 이 과정에서 수출지향적이면서도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발전주의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이러한 경쟁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부채 증가, 안보위기, 선진국의 보호주의 속에서 경제기획원은 안정화와 투자조정을 강조한 반면, 상공부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중화학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후자의 대안을 선택하면서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원이 집중되었다. 이 정책은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도화했지만 동시에 과잉투자, 높은 부채, 재벌집중과 중소기업의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1980년대에는 고전적 발전주의의 한계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제기획원과 KDI는 안정화·자유화를 강조했고, 상공부와 재무부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중시했다. 경쟁과 조정 속에서 시장진입 규제와 직접통제는 완화되었지만 국가의 산업조정 기능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구개발과 기술정책이 새로운 발전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즉 '자유화하면서도 국가조정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발전주의가 형성되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커져 과거와 같은 일방적 국가통제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문화와 기술집약화를 추진하였다. 경제기획원·재무부뿐 아니라 상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 관련 조직들이 정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국가의 산업정책 역량은 다원화되었다. G7 프로젝트와 반도체·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적 지원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의 해체를 예고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책은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금융 자유화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수용하는 동시에 재벌의 부채 중심 확장을 구조조정하고 벤처기업, 중소 부품·소재 기업, 지식집약 산업을 육성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벤처 육성, 부품·소재 산업정책은 국가가 과거 방식의 직접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도 전략산업과 혁신생태계 육성이라는 발

전주의적 요소는 지속되었다.

5. 연구방법과 자료

이 책은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실제 정책결정과 갈등의 과정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장기적 역사분석과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결합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행되었다. 총 81회의 개인 인터뷰에는 정부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 34명, 기업 관계자 27명, 경제단체 및 노동 관련 조직 관계자 20명이 포함되었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대기업, 부품업체, 산업협회, 공공연구기관을 폭넓게 조사하여 정책이 정부 내부에서 형성되는 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수용·변형되는 과정을 함께 추적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전·현직 경제관료와 기업인의 회고록, 정부 문서, 월간지와 신문자료, 산업별 정책자료와 교차 검증되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비롯한 국내 통계와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교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와 R&D, 정책금융, 생산과 고용, 첨단산업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 구성은 어떤 조직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서로 다른 대안이 어떻게 경쟁했으며, 어떤 대안이 선택되어 새로운 제도와 정책으로 정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기존 이론을 비판하고 이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2장과 제3장은 비교적·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치와 변화를 분석한다.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박정희 정부의 고전적 발전국가 형성,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전환,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재편, 그리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발전주의의 지속과 변화를 추적한다. 제9장은 한국의 경험을 다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비교하면서 이론적 함의를 일반화한다.

6. 학술적 의의와 기여

이 책의 첫째 의의는 한국 발전국가의 반세기 변화를 하나의 일관된 분석틀로 설명했다는 데 있다. 특정 정부나 특정 제도의 존속 여부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성립 또는 쇠퇴를 논하기보다, 1960년대의 고전적 발전주의에서 세계화 이후의 혁신지향적 발전주의까지를 장기적 진화 과정으로 연결하였다. 한국 발전국가의 핵심은 특정 조직(예, 경제기획원)이나 정책수단의 존속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발전국가론의 핵심 전제였던 '응집된 국가'(cohesive stat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단일한 관료집단이 일관된 청사진을 실행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료조직과 정책 엘리트가 경쟁하고 실패와 성과를 통해 학습하며 대안을 수정한 결과였다. 경쟁과 갈등은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 정책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발전국가 연구를 국가의 '강도'나 '자율성' 중심의 분석에서 국가 내부의 정치, 아이디어 경쟁, 조직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셋째, 세계화와 국가의 관계를 국가 쇠퇴 또는 과거 제도의 잔존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재해석한다. 한국의 사례는 세계화가 국가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정책수단과 조정방식을 개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통제와 시장진입 규제가 약화된 뒤에도 국가는 R&D, 정책금융, 조세지원, 공공연구기관, 산업 네트워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산업공유재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도 국민경제의 제도적 다양성과 국가조정의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정치경제적 함의를 갖는다.

넷째, 이 책은 발전을 위한 조정의 조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경쟁 자체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쟁과 갈등이 발전과 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상대방의 경험에서 학습할 수 있는 수평적 상호조정, 그리고 경쟁을 공동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공유된 목표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험은 국가의 응집성과 획일성이 아니라 다원적 경쟁과 조정의 결합이 장기적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명제는 간결하다. 한국 발전국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변화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나 하나의 합리적 계획의 실행이 아니라, 국가 안팎의 다양한 엘리트와 조직들이 문제와 해결책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Changes by Competition’과 ‘Continuity by Changes’라는 두 개념은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경제 속에서 국가와 제도가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일반적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술원 소식

♦ 제18회 한·일학술포럼 개최

2026년 10월 1일(목) 10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우리 학술원 회원과 일본학사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한·일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금년도 주제는 『언어학 및 농학』으로 언어학 분야는 이정민 회원(인·사2)이 '한국어와 일본어 놀라운 유사성에 재미있는 차이-허사부정 보문과 심리술어-관점의 문법을 향하여', KINSUI Satoshi(金水敏) 일본 학사원 회원이 '일본어에서는 왜 역할어가 고도로 발달했는가?'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농학 분야는 한재용 회원(자연5)이 '닭 유전자 편집분야의 발전 실험실에서 활용까지', NISHIZAWA Naoko(西澤直子) 일본 학사원 회원이 '인간건강을 뒷받침하는 작물의 영양흡수'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양국 회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상호 축적해 온 지적 자산과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발표자 이정민 회원



| 발표자 KINSUI Satoshi



| 발표자 한재용 회원



| 발표자 NISHIZAWA Naoko



| 포럼 기념 단체사진

♦ 제5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6년 10월 16일(금) 10시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학술원 회원과 학계 연구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문명의 전환(AI and the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에 가져올 변화를 철학, 인지과학, 교육의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돈희 조직위원장(인·사1)의 개회사와 이정복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강연에서는 이한구 회원(인·사1)이 '인공지능은 왜 문명사적 전환점인가?'의 주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닌 문명사적 의미를 짚었다. 주제발표 1부에서는 Mark Coeckelbergh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가 '체화된 AI와 그 철학적 허상들: 지배, 종말론, 인간-사물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신중섭 명예교수(강원대학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2부에서는 Steve Fleming 교수(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가 '메타인지란 무엇이며, 기계가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우충완 교수(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3부에서는 조영환 교수(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장)가 'AI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학습도구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길재 교수(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가 지정토론을 맡아 AI 시대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휴식과 다과 시간 이후에는 정진홍 회원의 사회로 전체 발표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세개 세션의 논의를 아우르며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기조강연자 이한구 회원



| 발표자 Mark Coeckelbergh 교수



| 발표자 Steve Fleming 교수



| 발표자 조영환 교수

• 특별 음악회 개최

오찬 후 오후 일정은 약 30분간에 걸친 SNU Quintet+의 현악 5중주와 바리톤 솔로의 조화로 시작되었다. SNU Quintet+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속으로 바이올린 임세은·진은서, 비올라 정초록, 첼로 고신영, 더블베이스 조은서(이상 서울대학교 관현악과 1~3학년)와 바리톤 임유택(서울대학교 성악과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 모두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한 실력파 연주자들이다. 이번 음악회의 연주곡은 Mozart의 'Eine Kleine Nachtmusik, K. 525', Piazzolla의 'Libertango', Morricone의 'Cinema Paradiso-Love Theme', 김효근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 Sinatra의 'My way'였다. 전곡 모두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 현악 5중주 연주자들



| 바리톤 임유택

♦ 2026년 제8차 임원회 개최

2026년 10월 7일(수) 14시 학술원 중회의실에서 제8차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학술원상추천위원회·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위원 추천 결과, 2027년도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026년도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 개최계획 등의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27년도 학술원 신임회원 선출계획 및 제72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계획에 대한 심의와 가결이 있었고, 대한민국학술원 제52회 국제학술대회 AI 선언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2026년 제3차 학술원 집담회 개최

2026년 10월 22일(목) 10시 30분 학술원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담회는 총 31명이 참가하였으며, 김진의 회원(자연1)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형목 회원(자연1)이 '지구 밖을 향한 도전과 지구 안의 책임 : 우주 시대의 학문과 사회'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영식 회원(인·사3)과 우경식 회원(자연2)의 토론 및 참가 회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응답이 있었다.



| 2026년 제8차 임원회



| 2026년 제3차 집담회

회의 및 행사 안내

♦ 2026년 외국학술원 석학초청 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10시
- **장소** : 학술원 대회의실(2층)
- **주제** :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 및 학술원의 역할
  (The Role of Sciences and Science Academies to Meet Global Challenges)
- **세부일정**

일정	주요 내용	발표 및 좌장
09:30~10:00	▸ 등록	
10:00~10:15	▸ 개회 및 전체 사회 ▸ 개회사	임정빈 조직위원장(자연2) 이정복 회장
1부: 기조 강연		**사회 1: 임돈희 회원(인·사3)**
10:15~10:45	▸ 왜 학술원이 필요한가? Why do we need academies?	Sven Lidin (스웨덴왕립학술원 회장)
10:45~11:15	▸ 국가 아카데미를 위한 국제 협력의 이점 The Benefits of International Engagement for National Science Academies	Cherry A. Murray (미국학술원 대외총괄책임자)
11:15~11:45	▸ 몽골 과학이 직면한 도전: 과거와 현재 Challenges facing Mongolian science: past and present	Tsegmed Tserendorj (몽골학술원 부회장)
	〈 오찬 : 3층 중회의실 〉	
2부: 기조 강연		**사회 2: 한인구 회원(인·사6)**
13:00~13:20	▸ 전환기의 과학 Science in a Time of Transition	Neil H. Shubin(미국학술원 회장) ※ 녹화 동영상 발표
13:30~14:00	▸ 격차 해소: 과학정책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Closing the Gap: How can we improve the science for policy process?	Heinz Faßmann (오스트리아학술원 회장)
14:00~14:30	▸ 노화는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 -의학적 관점- How can aging be managed? - a medical perspective -	이명식 회원(자연4)
	〈 휴 식 〉	
3부: 질의응답		**사회 3: 최양도 회원(자연5)**
15:00~16:00	▸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최진호, 이형목, 김호동, 강봉균, 김영식, 신희섭 회원) ▸ 폐회	

♦ 2026년 제9차 임원회 개최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4시
-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 2026년 하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개최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11시
-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 2026년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 개최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10시 •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발표자	주제	토론자	사회자
진동섭(인·사1)	교육정책컨설팅 모형 탐색	김재웅(서강대 명예교수)	신민섭(인·사1)
정진하(자연2)	감기의 종류와 관련 바이러스	임정빈(자연2)	김상구(자연2)

♦ 2026년 제7차 분과회 개최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분과	회의일시	분과	회의일시
1	11. 27.(금) 11:00	1	11. 26.(목) 11:00
2	11. 27.(금) 11:00	2	11. 24.(화) 11:00
3	11. 27.(금) 14:00	3	11. 26.(목) 11:00
4	11. 27.(금) 11:00	4	11. 24.(화) 16:00
5	11. 26.(목) 11:00	5	11. 25.(수) 11:00
6	11. 24.(화) 14:00		

회원 동정

♦ 회원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홍성윤(洪性潤) 회원(자연 제5분과)

별세일 2026.10.1.(향년 85세)

주요 학력 부경대학교 수산생물학 이학사(1966)·이학석사(1968)
University of Liverpool, UK, 해양생물학 이학박사(1987)

주요 서훈 문교부장관 표창(1988), 눌원문화상(1994), 근정포장(2004), 대통령 정부훈장(2006)

주요 경력 부경대학교 교수·해양과학대학 학장·명예교수
한국수중과학회 회장·한국해양학회 회장
한국수산학회지(영문지) Editor·한국수산학회지(국문지) 편집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2017.7.14.~2026.10.1.)

♦ 회원 저서 발간

· 조동일 회원 (인문사회 제2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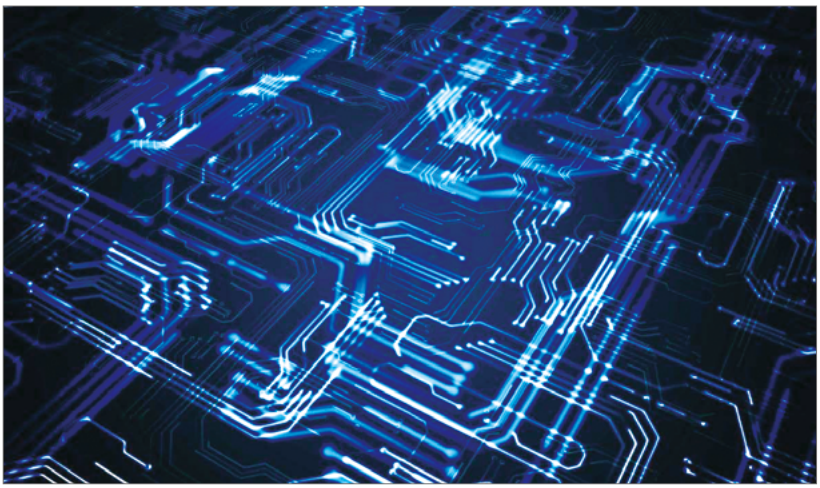
『한불 문명 비교론』, 조동일 저, 보고사, 2026.10.16.



| 『한불 문명 비교론』 도서 표지

국제학술기구 및 외국학술원 행사 안내

♦ 영국 왕립학회 학술세미나



기 간 2026.11.23.(월)~11.25.(수), 09:00~16:00(영국 현지시간)

장 소 영국 왕립학회, 런던(온라인 참여 가능)

주 최 영국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주 제 신경모사 컴퓨팅을 위한 혁신 기술

내 용 영국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학술세미나 「Innovating technologies for neuromorphic computing」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의 연산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뇌의 정보처리 원리를 모방한 신경모사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1월 23~24일에는 국제 연구자들이 신경모사 컴퓨팅의 핵심 기술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며, 25일에는 관련 기술의 산업적 적용과 상용화, 미래 발전 방향을 다룹니다. 본 회의에서는 재료·소자·시스템·응용 분야 간 융합연구와 국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 https://shorturl.at/ctbNF

참가방법 : 참가비 무료, 사전 등록 필수.

※ 관심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담당자(이슬 esther08@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